



제2장 인문지리

제1절 인구(人口)

아득한 옛날 우리나라에는 북방계통(北方系統)의 아세안족의 한 지파가 남하해서 중부 이북 지방에 거주했으며 중부 이남에는 남방계통(南方系統)의 종족이 이주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에 부여족(扶餘族)과 중국의 한족이 이주, 혼거(混居)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남쪽에는 마한(馬韓), 변한(弁韓), 진한(辰韓)이 부족국가를 형성해 왔는데 우리 고장이 속했던 마한 땅에는 온조왕(溫祚王)이 백제국을 건설하여 토착인이 되었으나 6백여년 뒤에 신라(新羅)에 병합 되면서 신라인들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고대, 중세, 근세를 통하여 많은 외침과 전란으로 이민족(異民族)이 혼입하였으나 선주민(先住民)에 동화되어 오늘의 민족을 이루었다.

1. 삼국통일(三國統一) 당시의 인구동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백제에서 5부 37군 2백성(城) 76만호의 구역과 인구를 취득했으며 고구려에서는 5부 1백 76성 69만호 구역과 인구를 취득했다고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의 인구가 백제의 인구보다 적게 기록된 것은 통일 당시 대동강(大同江)이남만 병합하고 대동강이 북에서 송화강(松花江)에 이르는 광활한 국토는 병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기서 일호(一戶)의 평균 가족수를 3명으로 추산해 보면 백제의 인구는 2백28만이며, 고구려의 인구는 2백7만, 신라의 인구를 2백만으로 추산하더라도 통일신라의 인구는 6백35만이 되는데 믿어지기가 어렵다. 신라가 백제를 병합한 것이 서기 660년이고, 고구려는 668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전 통일신라의 인구가 6백30여만 이라면 맬더스(Malthus, T.R)의 이론(인구론)으로 따져 보면 지금쯤은 엄청난 인구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도중에 천재지변이나 전화 또는 예기치 못한 인구의 대폭감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튼 삼국사기의 기록은 믿기 어려우며 1호를 일인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76만명이 되는데 이때 백제는 4주 39군이었으므로 4주의 인구를 15만으로 보고 나머지 61만을 39군으로 나누어 본다면 1군의 인구가 약 15,600 명쯤 된다. 이때에 장수군은 백제에 속해 있었으나 산간 오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고을의 평균 인구의 십분의 일인 1,500여명보다도 훨씬 못 미친 기백명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2. 근세(近世)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인구동향

근세조선 태종조 4년(1,404)의 전라도 인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전국	153,403호	322,746명
전라도	15,703호	36,151명

당시 전라도는 지금의 전남·북, 제주도를 포함했던 것으로 부1, 도호부 4, 주2, 군과 현이 50으로 도합 57개 고을이었으며, 인구는 36,151명이었다. 여기서 통일 당시 백제와 비교해 보면 당시 백제의 영역(領域)은 태종조의 전라도에다 충청도 일부를 합한 영역인데 일호를 인구 한 사람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76만 인구는 엄청난 과장이라 볼 수 있으며 그 십분의 일인 7만 6천명도, 760년이 지난 태종조의 36,151명에 비하면 과장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문종(文宗) 2년(1452년)에 시작하여 단종(端宗) 2년(1454년)에 완성(完成)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8권에 의하면 전라도가 24,073호에 인구는 94,248명이었고, 우리 장수군은 100호 남짓한 호수에 인구도 기백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무렵의 인구 총계는 노예나 천민을 제외했던 것 같다. 노복의 적이 따로 있었다. 다음은 1648년(인조〈仁祖〉26년)의 인구총계다.

전국	441,321 호	1,313,650 명
전라도	122,659 호	431,837 명

인조때 전라도 인구 약 43만명을 57 개 군·현으로 평균하면 7,000여명 되는데 지금부터 약 330여년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산간 오지인 장수군의 인구는 1,000명 내외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다음은 10년후인 효종(孝宗)8년(1657년)의 인구다.

전국	658,771 호	2,290,083 명
전라도	156,496 호	522,032 명

위의 전라도 인구를 57 개 군·현으로 평균하면 9,158 명이 되며, 20년 후인 1678년(숙종(肅宗)4년) 인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1,342,418 호	5,246,972 명
전라도	256,151 호	1,000,014 명

위의 통계를 20년전인 효종 8년의 통계와 비교하면 20년 동안에 약 478,000명이나 증가하여 약 배의 인구 증가폭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을 전에 따라 57 개 군·현으로 평균하면 약 17,544 명이 된다.

이로부터 48년 후인 1726년(영조(英祖) 2년)의 인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1,576,590 호	7,032,425 명
전라도	281,554 호	1,105,149 명

1678년(숙종 4년)부터 1726년(영조 2년) 사이의 약 반세기 동안에 전라도 인구가 10만명정도 증가했는데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2%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때에 유독 천재 지변이나 병마로 인해서 어린이 사망율이 극심했던 것 같으며 평균 연령이 낮았던 것으로 느껴진다. 이로부터 80년후인 1807년(순조(純祖)7년)의 인구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1,764,504 호	7,561,403 명
전라도	320,990 호	1,251,069 명

1726년(영조 2년)부터 1807년(순조 7년) 사이의 80년간 전라도의 인구는 145,920명이 증가하여 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연평균으로 따지면 1년의 인구 증가율은 0.17%로서 숙종 4년부터 영조 2년 사이 보다 더 저조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숙종조에서 순조조 사이의 130여년 동안의 인구통계는 천재지변이나 높은 어린이 사망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록의 신빙성 결여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1864년(고종 10년)의 인구 통계다.

전국	1,703,454 호	6,823,450 명
전라도	160,982 호	606,814 명

위의 통계를 보면 57년전인 순조 7년때보다 전라도에서 약 345,000여명이 감소되고 전국 인구는 1,270,000여명이 감소되었는데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감소요인을 고려한다하더라도 실록의 기록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00년(고종 37년) 이때는 이미 1895년(고종 32년)에 지방 관제 개편으로 전라도가 남·북도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고종 37년의 전라도의 인구 통계는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110,835 호	440,901 명
전라남도	114,310 호	490,033 명(제주도, 전남에 포함)
계	225,145 호	930,934 명

당시 전라북도는 금산군을 포함하여 3부 14군이었으니 이것을 17개 부·군으로 평균하면 1군의 인구는 34,818명이 된다. 이때 장수군의 인구 통계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각 군의 평균 인구 34,818에 거의 육박했던 것이 아닌가한다. 왜냐하면 1922년의 장수군의 인구는 54,946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현대의 인구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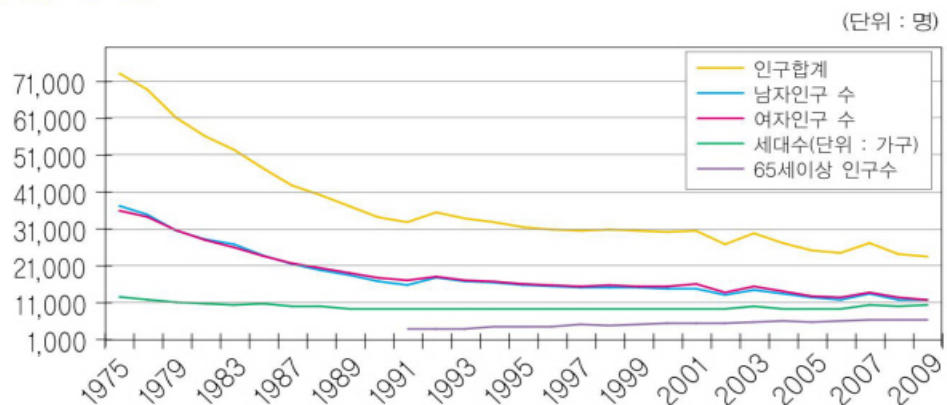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 고장의 근간 인구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몇 가지로 통계표를 만들었다. 장수군의 인구는 1966년 81,179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곁들여서 가구수, 인구밀도, 가구당 평균 인구수도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30여년간의 남녀 인구를 비교해 보면 1988년까지는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후는 여자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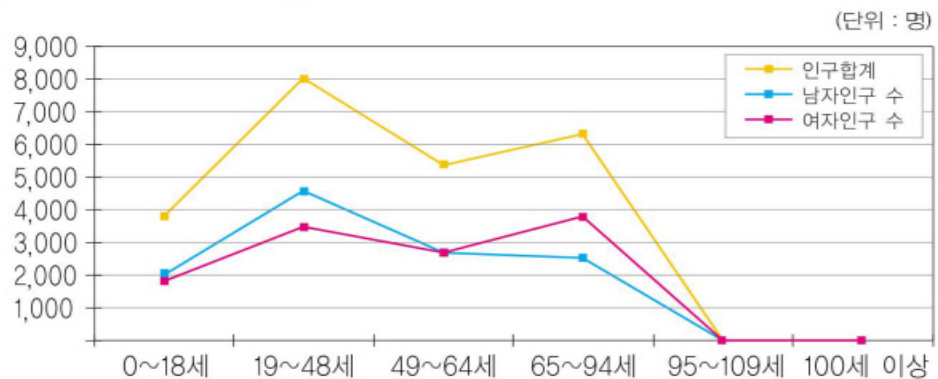
인구추이를 보면 1975년에서 1980년대까지는 세대수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두드러진 이농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층의 이농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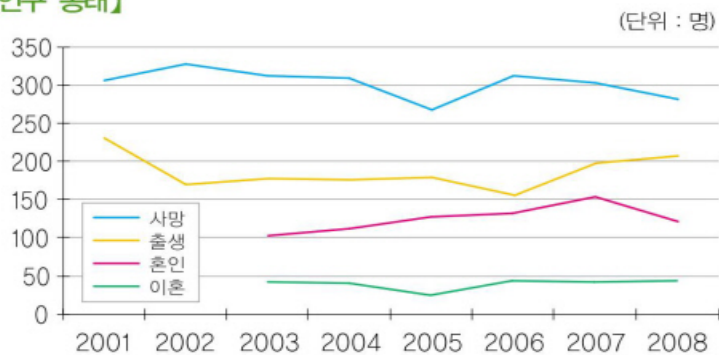


※ 1990년까지는 인구주택 총조사 또는 상주인구조사 결과이며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임. 고령자인구 수는 1991년부터의 통계임.

【2009년 연령과 성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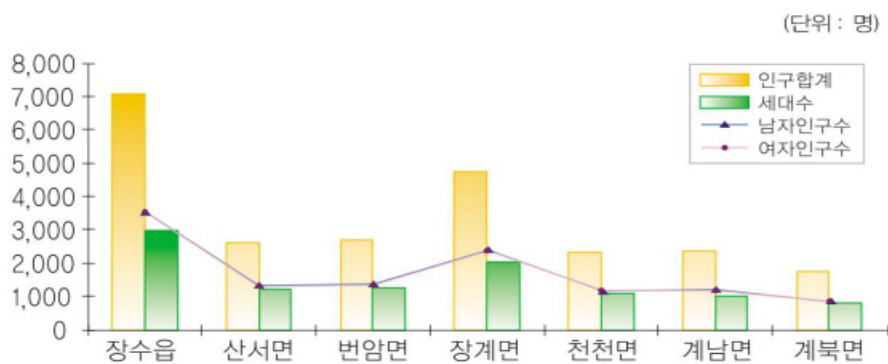


【인구 동태】



* 위 그래프에서 2001~2002년의 혼인·이혼 통계는 없어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읍·면별 세대와 인구】



(단위 : 명)

구분	인구 합계	세대수	남자인구 수	여자인구 수
장수읍	7,087	2,967	3,548	3,539
산서면	2,605	1,180	1,291	1,314
번암면	2,659	1,259	1,330	1,329
장계면	4,727	2,027	2,359	2,368
천천면	2,316	1,062	1,154	1,162
계남면	2,369	1,005	1,200	1,169
계북면	1,715	782	853	862

옛집

제2 절 취락(聚落)

1. 취락의 연원(沿原)과 분포(分布)



취락이라 함은 사람이 사는 주택의 집단 장소로서 첫째 인보상조(隣保相助)의 의의, 둘째 집단활동의 의의, 셋째 생산활동의 의의, 넷째 사회활동의 의의, 다섯째 씨족활동의 의의, 여섯째 공동방위의 의

의를 살리기 위해서 2주택 이상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촌락이란 마을을 뜻하는 것인데, 서로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도회지에서 떨어진 시골에 몇 집이 거주하는 곳을 마을이라 한다. 마을은 주민들의 생활에 따라 농촌, 어촌, 산촌, 광산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락은 고대(古代) 원시부족사회에서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이를洞里(洞里)라고 한다. 취락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이후 말단 지방행정구역으로 촌(村), 향(鄕), 소(所), 부곡(部曲)등을 두었는데, 고려 초(高麗初)까지 실시되어 오다 차츰 쇠퇴하여 근세(近世) 조선(朝鮮) 중엽부터는 거의 없어진 상태였으며, 보편적인 일반 지방행정구역이 아니라 특수지역에 설치한 말단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촌은 대략 10 호 가량의 혈연집단(血緣集團)이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며 향, 소, 부곡 등은 일반적인 양민(良民)의 신분보다 지체가 낮은 천민(賤民)의 거주지였다. 부곡은 원래 중국에서는 노예나 비복에 속한 천민들을 가리킨 말이었는데, 신라에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노예 등 천민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도 취락은 특수행정구역의 말단단위로 설치되어 향(鄕), 소(所), 부곡(部曲), 역(驛), 진(津), 관(館)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향과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천민 집단이며, 소는 대체로 금(金), 은(銀), 동(銅), 철(鐵), 사(絲), 지(紙), 묵(墨), 도기(陶器) 등 수공업(手工業)에 종사하는 천민집단이고, 역은 육상(陸上), 진은 수상(水上)의 교통요지에 설치된 교통기관이었고, 관은 숙박소(宿泊所)였지만 이곳의 주민들도 모두 천민이었

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향, 소, 부곡, 역, 진, 관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향, 소,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천민이 아니고 대부분이 죄인이나 전쟁 포로들이었다.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 일반적인 행정구역과 향, 소, 부곡 등을 구별하는 기준에 있어 호구(戶口)나 인구의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소재하는 주, 부, 군, 현의 수령(守令)들이 관내의 향, 소, 부곡, 역, 진, 관 등을 관할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 소, 부곡 등이 그 곳을 관장하던 쪽보다 더 큰 예도 있었다고 한다. 향, 소, 부곡 등 특수행정구역(區劃)을 설치했던 까닭은 전쟁 포로, 반란을 일으킨 죄인, 혹은 일반적인 죄인들을 일정한 지역에 수용하면서 그들에게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노동을 시키는 것이 발단이었으며, 전대에 기술자를 천시하던 습성은 신라, 고려 때부터 물려받은 폐습임을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신라 때부터 시작하여 고려 때까지 전성을 이룬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와 고구려에서 얻은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향, 소, 부곡에 배치(配置) 사역(使役)하였기 때문이며, 고려는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포로(捕虜)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근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특수행정의 말단구역이라 볼 수 있는 향, 소, 부곡은 거의 없어지고 동리(村里)가 일반 행정의 말단구역이었는데 명칭이 구구하여 동(洞) 또는 리(里)라고 부르는 외에 포(浦), 평(坪), 촌(村)이라 부르기도 하고 함경도 지방에서는 향이라 하는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으며 구획과 경계가 불분명한 곳도 많았으나 자치적 색채를 가진 최소(最小)의 행정단위로 5, 6내지 10 정도로 방(坊)과 면(面)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1917년에 공포(公布) 시행(施行)된 면제(面制)에 의하여 동·리가 법적 근거를 획득하고 그 해의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으로 동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었다. 그 후 ‘부락’이란 말이 법적공용행정용어(法的公用行政用語)로 쓰였는데 부락이란 뜻은 도회지 외에서 여러 민가들이 한 때를 이루고 있는 지연단체(地緣團體)의 의미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 시원(始源)은 한서(漢書)에 부락고명(部落鼓鳴)이라 하여 만이(蠻夷) 즉 남쪽 오랑캐나, 동쪽 야만인의 부족들이 무리를 지어 북치고 피리 불며 모여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미개인의 집단이란 악의적이며 식민통치(植民統治)를 위한 의도적인 용어로 사용했으며 리를 2개 이상의 구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1930년 12월에 지방제도(地方制度) 개정(改正)에 따라 읍·면제

와 도제를 공포하면서 읍·면이 법인격(法人格)을 얻게 됨에 따라 동리는 법 인동력을 잃고 읍·면이 단순한 행정구역이 되었다.

대한민국시대의 법적 리는 근세 조선시대에 내려온 동리를 1914년 3월 부, 군, 면 폐합(廢合)에 따라 일제 때 써온 것을 1949년 8월 15일부터 시행 케 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종래의 제도를 계승하기로 한 것은 전기(前 記)한 리를 그대로 법정리(法定里)로 쓴다는 의미이며, 취락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행정상 운영리(運營里)는 법적 리를 그대로 두고 그것을 분리(分里) 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운영리도 취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2. 취락의 특징(特徵)과 위치(位置), 풍수설(風水說)

첫째, 우리나라 취락의 초기 형성과정에서 볼 때 씨족취락(氏族聚落)이 그 발달임을 알 수 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개 그 지역의 이름 있는 취락을 살펴보면 어느 성씨가 누대를 집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요즈음은 취락 구조개선(聚落構造改善)이라고 해서 행정의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일시적으 로 조성할 수 있지만 옛날의 취락은 당초(當初)에 여러 주택이 일시에 조성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직(官職)에 있던 분 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落鄕)해서 새 터를 잡는다거나, 유배지(流配地)에 서 본인이나 그 자손에 의해서 새 터를 잡거나, 의인(義人)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새 터를 잡고 2대, 3대, 10대, 20대를 살아가는 동안 아들 손자가 선영(先塋)을 지키면서 수 10호(戶) 혹은 수 100호(戶)의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씨족취락이 많고, 곳곳에 산성취락(散姓聚落)도 더러 있는데 이는 그 성씨의 취객(娶客)이 처가의 인연을 좇아서 모여 사는 친인 척(親姻戚) 혼성취락(混性聚落)인 것이다.

옛날의 봉건윤리사회(封建倫理社會)에서 산업경제사회(產業經濟社會)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核家族化)로 인한 대가족제도의 붕괴, 교통의 발달로 국내가 일일생활권(一日生活圈)이 되고 경제위주의 가치관의 전도(顛倒)로 씨족관념(氏族觀念)이 희박해 지면서 근래에는 자기중심적 경 제 위주의 혼성취락으로 변했다.

둘째, 우리나라의 취락은 거개(擧皆)가 비산비야(非山非野) 배산임수(背山臨水)에 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동양(東洋) 음양오행설(陰陽五行 說)인 풍수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수설에 의하면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陽宅), 죽은 사람의 집, 즉 묘(墓)를 음택(陰宅(유택(幽宅)))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높은 산마루는 바람이 세고 농경지도 없으며, 교통도 좋지 않고 또한 들판은 초목을 구하기가 힘들고 홍수에 침수우려가 있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산맥이 땃힌 야산을 동리(취락)의 뒷산 즉, 청룡(靑龍)으로 삼고 앞에는 기름진 들녘 끝으로 시냇물이 동리를 유유히 감돌아서 빠지는지 모르는 곳, 이런 곳에 위치한 마을이 비산비야의 배산임수에 자리 잡은 명당이라 불리는 취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 위도상 36도부터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태양이 남위 23도까지 남하하므로 남향집에는 아침부터 해지기 직전까지 햇볕이 방안을 비추어 주택과 마을이 따뜻하고 태양열을 이용한 천연의 난방장치가 되는 셈이며 일조시간(日照時間)이 길다.

예로부터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사방위(四方位)에다 결부시키기도 했는데 동은 부귀하고, 남은 장수하고, 서는 빈천(貧賤)하고, 북은 단명(短命)한다고 해서 남향집과 동향집을 선호했다. 동향집은 남향집만큼은 선호하지 않았는데, 4계절을 통해서 오전 중 태양광선(太陽光線)이 방안까지 비치므로 겨울에는 오전 중 따뜻하나 반대로 여름에는 아침부터 뜨거운 별이 들어오는 것이 흠이다.

113

해 있고, 처음과 시작은 바로 생동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어서 동쪽을 부귀가 있는 곳이라 했으며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머리를 동쪽이나 남쪽으로 두르고 자야 부귀장수(富貴長壽)한다고 믿었다. 서향은 동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겨울에는 오후에 별이 비치므로 무방하나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름철 오후에 직사광선이 방안까지 비치는 것이다. 북향은 겨울에는 더욱 춥고, 여름에는 가장 더워서 위생적으로나 건물의 수명에도 지장이 있어서 북향취락은 금기하는 편으로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북향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듯 주택의 방향은 건강에서나 경제적 생활면에서나 건물의 수명으로 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근세 조선중엽 전라관찰사(全羅觀察使)로 부임한 이서구(李書九)감사가 전주의 주택방향을 보아하니 대부분이 서북향이었다고 한다. 이서구감사는 주민에게 주택의 방향을 남·동향으로 개조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 남향집으로 만드는데 성공해서 이때부터 전주가 활기에 넘치고 날로 융성 발전했다고 한다.

3. 취락(聚落)의 형태(形態)

취락은 2주택 이상의 집합체를 말하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상 그 모양으로 보아 관서형(關西型), 중부형(中部型), 남부형(南部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쪽의 관서형은 「ㄷ」자형 건물이 많고, 중부형은 「ㄴ」자형 주택이 대부분이며, 남부형은 “—”자형 주택이 거의 전부다. 우리 고장은 남부형의 일자주택이 전체 건물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형과 관서형은 쌀에 뉘처럼 약간 있다.

다음은 주택 건물의 내부구조로 보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또한 상류층형(양반, 부유층), 중류층형(중산층), 하류층형(상민층, 빈한층)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도시형의 언급(言及)은 생략하기로 하고, 농촌형 주택은 일반적으로 보온을 위해 창문을 작게 하며, 온돌방(溫突房)에 다 대청마루가 있다.

또한 부엌과 안방 사이에 조그마한 셋문이 통해 있고,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마당이 넓으며 수확한 곡식을 수장(收藏)하기 위해서 곳간이 있고 반드시 각종 축사가 있다. 변소(便所)는 뒷간, 또는 측간(廁間)이라 해서 옛날에는 흔히 돼지막(돼지우리)위에 긴 목판자 두 개를 걸쳐 놓고 사용하기도 하

고, 잿간에 사용하고 재를 버무려 거름을 만들기도 했으며, 우물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웅덩이를 파서 노천인 상태로 길어다 마셨고, 주택의 지붕도 초가가 대부분이었으며 담장도 토담이 일부이고, 돌담과 싸리나무울타리가 많았고, 담장과 대문이 없는 집이 더러 있었으나, 시대의 변천과 새마을사업으로 초가지붕은 기와, 스텔트, 합석지붕으로 바뀌었고, 담장도 ब्ल록(벽돌)와 시멘트, 돌담으로 바뀌었다. 우물도 상수도 사업으로 집안에서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마시고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상류층형 주택은 구조상으로 안채(몸채)와 바깥채(행랑채)로 되어 있는데 안채의 앞이나 옆에 바깥채를 지어서 안에는 내실을 꾸미고, 외간 남자들의 출입을 엄금했으며 바깥채에는 접빈실(接賓室)을 꾸며서 집안의 어른이 거처하면서 손님을 맞이하였고, 그 옆에다 사랑방을 꾸며서 내빈의 대기실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담하며 소식을 교환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대문 옆에 행랑방을 꾸며서 머슴을 거처케 했다.

중류층형 주택은 안채와 사랑채를 지어서 안채에는 가족들이 거처하고, 사랑방에는 동네사람과 외지인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교환하고 짚신도 삼고, 농사에 필요한 기구도 만들어 가며 환담하는 곳으로 삼았다.

하류층형은 몸채(안채)에방 몇 개와 정지(부엌)를 꾸며서 사는 단순한 주택이다.

다음은 취락을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보면, 산을 등지고 취락을 이루고 있는 배산촌(背山村), 하천 옆에 취락을 조성한 임하촌(臨河村), 둥근 형태로 여기저기 떠엄떠엄 흩어져 있는 산촌(散村), 열을 맞추어 취락을 조성한 열촌(列村), 거리를 이루고 있는 취락을 가촌(街村)이라고 했고, 이 밖에 종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종교촌, 마을에 서당이 있는 서당촌, 주변에 광산이 있어 광부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광산촌, 사기그릇을 만드는 사기점촌, 옹기그릇을 만드는 옹기점촌,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모여서 사는 관광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씨족취락(氏族聚落)

취락이 주택의 집합체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핵심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락의 최초를 살펴보면 전기했듯이 씨족의 친·인척이 집거(集居)한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씨족의 집단이 더 큰 취락을 형성하며 발전하

는 경우도 있고, 많은 씨족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혼거(混居)하는 산성취락(散姓聚落)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명성이 있는 취락을 보면 어느 명문거족(名門巨族)들이 대대로 집거하는 씨족취락임을 알 수 있다.

씨족이란 동성동본인 한 할아버지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나 동성동본이 모여 산다고 해서 씨족집단이라고 말하기는 그 의미가 희박하다. 씨족취락이란 첫째 훌륭한 입향조(入鄕祖)가 있어야 하고, 둘째 역사와 전통이 뚜렷해야 하며, 셋째 가까운 선대에 모두가 알만한 현조(顯祖)가 있어 그분이 지역이나 사회와 국가에 끼친 공덕 때문에 자손들은 긍지를 갖게 되고, 세상에서도 그들을 현조(顯祖), 지역과 연관시켜 높이 평가하고 좋게 인식하는 씨족집단을 말한다.

우리가 이러한 씨족집단(취락)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은 훌륭한 조상의 한 핏줄을 가진 후예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가문이라는 자긍심이 강하고 그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동족으로서의 친목(親睦)과 결속, 그리고 번창을 도모하는 조직 활동이 꾸준히 전개됨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작게는 마을과 지역에 크게는 국가와 사회전반에 직접, 간접의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씨족이 한 마을에 몇 호정도 모여 살아야 씨족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동족집단에 관해서 1930년에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15호를 기준으로 했던 것 같으며, 그때의 조사에 의하면 장수군의 동족취락은 45개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근 6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동족취락의 상황을 살펴보니 그때의 절반도 못되는 상태이며 동족만 모여 사는 취락은 하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현상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경제위주의 생활근거, 핵가족화로 인한 씨족집거관념의 희박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전술(前述)한 바 있거니와 이런 연유로 장수군의 인구도 1966년의 81,179명(13,754호)을 고비로 점점 이농현상(移農現象)이 심해져서 1987년 11월 1일 조사에서는 42,840명(10,085호)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여 20여년 사이에 거의 절반으로 상주인구가 줄어들었다. 2007년 장수군의 인구는 10,449세대에 26,912명(남 13,328, 여 13,538)이다.

장수군내에 집거하는 씨족취락을 조사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정했다.

첫째, 입향조가 입장(入長)한 지 200년이 넘고 둘째, 역사와 전통이 뚜렷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흔적이 있으며 셋째, 15호 이상의 씨족이 일정한 지역에 주거하는 경우이다.³¹⁾

가. 장수읍 씨족취락

최근 1996년말 장수읍 관내의 씨족취락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³²⁾ 김해김씨는 장수리의 남동에 22호, 북동에 13호, 수분에 12호, 이교에 10호 살고 있으며, 밀양박씨는 장수리 북동에 19호, 교촌에 8호 살고 있으며, 전주최씨는 음선에 14호, 준비(중비)에 13호, 대성에 4호, 식천에 15호, 안양에 12호 살고 있으며, 장수리 북동에 전주이씨 18호가 살고 있으며, 용계에는 환개암익의 손인 진주강씨 18여호가 오래 전 함양으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세거하고 있다.

옛날에는 용계마을이 완전히 강씨 일색이었다고 한다. 안양에는 장수문화계발(長水文化啓發)의 선구자이며 수절신(守節臣)인 정신재(靜愼齋) 백장선생(白莊先生)의 후예(後裔)인 수원백씨(水原白氏) 15호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더 많은 호수가 살았다고 한다. 고려 26대 충선왕조(忠宣王朝)에서 평장사(平章事 : 정승)를 지내고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진 이임간(李林幹)의 후예인 장천(장수) 이씨들이 관향(貫鄉)인 장수일원에 50여호 살고 있으며, 명재상(名宰相)으로 숭앙(崇仰)하며 장수출생으로 전해오는 방촌(龐村) 황희정승(黃喜政丞)의 후예인 장수황씨가 관향인 장수 일원에 30여호 세거하고 있다.

나. 산서면의 씨족취락

장수군내에서는 산서면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기준에 맞는 씨족취락이 가장 많은 편이다. 1930년의 조사에는 산서면내에 11개의 씨족취락이 있었는데, 씨족의 호수는 그때보다 줄어들었으며, 씨족 일색의 동리는 찾아보기 어렵다하더라도 어느 동네하면 어떤 씨족 하는 말 즉 월곡하면 창원정씨, 오포(오산)하면 안동권씨 등 일반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씨족취락은 옛날과 같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1) 월곡의 창원정씨(昌原丁氏)

산서면 하월리 사계리, 봉서리 등지를 1914년 3월 지방 행정 구역 개편이

31) 이 씨족취락의 조사는 장수군 문화 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중「장수군내의 주요 동족집단」을 참고, 또한 행정 계통의 조사 참고

32) 이 조사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말한 취락이 아니고 행정 단위의 분리에 동성동본이 15호 이상 세거(世居)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적은 것임.

있기 전에는 남원 땅에 속했으며 진전방월곡(眞田坊月谷)이라고 불렸다. 이 일대에 창원정씨가 약 75호정도 살고 있다.

그중 하월리와 사계리 두 마을에 40여 호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가 도덕정치(道德政治)의 창시자인 조광조(趙光祖)의 문인(門人)이자 덕행으로 이름이 높은 유현(遊軒) 정황(1512~1560)의 후예이며, 봉서리의 36여호는 정황의 당숙인 정종석(丁終碩; 만현(晩軒) 정염(丁焰)의 부(父))의 후예이다.

참고삼아 1930년 10월 1일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하월리에 28호, 사계리에 31호, 봉서리에 26호 등 모두 85호의 창원정씨가 살고 있었다. 그때부터 약 80년이 지난 2009년말 현재 산서면의 창원정씨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사계리 서원마을에 10호, 사계리 왕곡마을에 4호, 봉서리에 19호, 하월리에 10호, 인근 마을에 산재한 11호를 합하면 모두 54호가 살고 있다.

정황은 관향이 창원이며 자는 수회(秀晦)요, 호를 유현이라 하였고, 충간공(忠簡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512년(중종 7년 임신) 2월 11일 사산감역(四山監役) 세명(世明)의 차남으로 태어나서 일찍이 정암 조광조의 문하에서 학문 수업하여 1536년(중종 31년) 정시(庭試) 사인발(四人拔)에 뽑혀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로 관직에 나갔다. 그 후 승문원 교검(校檢), 예조좌랑, 성균관 전직, 사간원정언, 예조정랑, 춘추관, 기주관, 의정부 사인(舍人) 등 여러 부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원래 공의 성품은 대쪽같이 강직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지라. 인종국상(仁宗國喪)의 기일 등 장례절차를 둘러싼 권척신(權戚臣)들의 무례에 항의하는 소를 올리기도 했으며, 당시 윤원형(尹元衡)등의 세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다가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때 의정부 검상(檢詳)에서 파직되어 경상도 곤양땅에 유배 되었다가 서기 1548년(명종 3년)에 유배지를 거제도도로 옮겼으며, 1560년(명종 15년 경신) 7월 6일 13년의 귀양살이 끝에 유배지에서 병사했는데 유해는 유림들에 의해 고향인 월곡에 반장(返葬)되었다.

그 후 1570년(선조 3년) 이율곡의 신원(伸冤)에 의해 작위를 되찾고, 1704년(숙종 30년)에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의 증직이 내렸고, 1708년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예조판서의 증직이 내려졌다.

정환(丁煥)은 자는 용회(用晦)요, 호는 회산(檜山)이며, 정황공의 친형이다. 무자별시(戊子別試)에 급제하여 서장관과 경상도 부사(叅事)를 지냈다. 급제 때 공(公)의 나이 32세였다. 정염(丁焰)의 자는 군회(君晦)요, 호는 만현(晩軒)이다. 호증참의(戶曾參議) 정종석(丁終碩)의 둘째 아들이며 정황의 재

종제가 된다. 1560년 (명종 15년 경신) 별시(別試)에 급제한 후 1567년 능성현령(稜城縣令)에 제수되었으며 줄곧 예조정랑, 영광군수, 안성군수, 형조정랑, 광주목사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다 낙향하여 지금당(知今堂)을 짓고 후학 양성에 열성을 다했다. 또한 정유재란(丁酉再亂) 때는 의병을 초모(招募)하고 군량을 모아 출전하기도 했다. 1702년에 간행된 용성지(남원지)를 보면 위의 세분은 지방명현(地方名賢) 27인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영천서원(寧川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이렇듯 산서정문(山西丁門)은 훌륭한 현조(顯祖)를 모시고 있으며, 세상에서는 정황의 후손들을 ‘월곡정씨(月谷丁氏)’ 또는 ‘다과실정씨’ 라고 부르고, 정염의 후손들은 봉서리에 많이 산다고 한다.

창원정씨(昌原丁氏)가 산서에 세거(世居)하는 영천이씨(거영이씨)집안으로 장가를 들었다. 장인은 고려 말의 평장사(平章事)를 지내고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해진 이임간의 동생이며, 영천부원군(寧川府院君)에 봉해진 이릉간(李凌幹)이고, 그 인연으로 처가의 농토가 있는 이곳 월곡으로 이거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한다.

2) 오뫼(오산)의 안동권씨(安東權氏)

산서면 오산리 하오마을에 12호, 월강마을에 20호, 초장마을에 15호와, 이웃 마을인 신창리 대창마을에 3호 등, 세칭 ‘오뫼권씨’ 라고 부르는 안동권씨가 50여호 살고 있다. 이들은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인 권인(1550~?)의 후손으로 왜정(倭政)때만 해도 이 일대에 100여호가 살았다고 한다.

1930년 10월 1일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오산리만해도 75호의 안동권씨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때 100여호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 같다.

권인은 호를 칠봉(七峯)이라 하였으며 원래 한양에 살았는데 임란 후 남원골 진전방(眞田坊) 오뫼(오산리)에서 우거(寓居)했다고 하며, 그 연유는 확실치 않으나 공의 두번째 처의 친가가 남원세거의 남원양씨인데 이것이 인연이 된 것 아닌가보기도 한다.

그 후 그의 자손들이 이곳 오뫼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1989년 8월 말로 산서면 일대에 외뫼를 중심으로 66호가 살고 있었으나 2009년 10월말 현재는 50여호 살고 있다.

3) 양촌의 경주이씨(慶州李氏)

산서면 쌍계리 양촌(양신)마을에는 2009년말 현재 경주이씨가 12호 살고 있으며 인근 강치마을까지 합치면 14여호 살고 있다. 이들은 도덕군자로 유명한 활계(活溪) 이대유의 후예이다.

이대유(1540~1609)는 휘(諱)이며 호는 활계이다. 공(公)은 1570년(선조3년) 사마시생원(司馬試生員)에 합격한 후 우계(牛溪) 성혼의 천거로 관계에 들어갔으나 곧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와서 극진한 효성으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며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여 조광조의 학통(學統)을 이은 숨어있는 호남의 도덕군자로 추앙을 받았다. 암행어사 목장흠(睦長欽)같은 이는 공의 학식과 덕망에 감탄하여 조정에 장계를 올려 사옹원참봉(司饔院參奉)의 직첩이 내려졌으나 사양하고 나서지 않았다. 공은 고려 말의 명신익재(名臣益齋) 이재현(李齋賢)의 10 세손이요,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자 박팽년(朴彭年)의 외손인 이원의 증손이며, 1540년(중종 35년) 성균관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한 종윤(宗胤)의 아들이다. 공의 외가는 순창 세거의 설씨(薛氏)요, 처가는 월곡의 창원정씨였다. 공은 향리에 있으면서 임란이 나자 만헌정암과 창의소(倡義所)를 차리고 군자금과 의병을 모집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만헌을 의병장으로 모시고 남원성을 구원하러 나서기도 했다.

또한 만헌과 같이 하월리에 지금당(知今堂)을 세워 후학양성(後學養成)에 온힘을 기울기도 했다. 서기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 공의 후손인 이상선씨 등 이씨 집안의 몇 분과 산서면내의 여러 씨족에서 여러분이 운동에 참여 장수에서는 제일 먼저 산서에서 독립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1930년 10월 1일 조사에 의하면 쌍계리에 경주이씨가 25호 살고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80년이 흐른 지금은 호수가 오히려 더 불어난 것을 보면 선산을 지키는 애향심이 강한 것으로 돋보이기도 한다.

4) 원흥(元興)의 옥천육씨(沃川陸氏)

산서면 마하리 원흥마을에는 2009년말 현재 옥천육씨 23호 살고 있으며, 면내에는 52여호가 살고 있다. 모두가 여말(麗末) 선초(鮮初)의 인물인 도순찰사 육려(都巡察使 陸麗)의 후예이다.

1930년 10월 1일 현재의 조사에는 마하리에 30호가 살았던 것으로 나와 있다. 당시 장수군 관내에는 옥천 육씨가 84호 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원흥마을과 그 북쪽에 이웃한 동고지마을에 살고 있었다. 동고지는 오늘날의 행

정구역상으로는 산서면 학선리에 속하며, 상동고지와 하동고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 마을에 옥천육씨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동고지 육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1989년 8월네는 원흥마을에 28호, 동고마을에 5호, 평촌마을에 1호가 살았으며, 산서면 일대에는 42호가 살고 있었다. 과거 '동고지 육씨'가 현재에 와서는 '원흥육씨'가 됐으며 옥천육씨의 도선산(都先山)도 이 지역에 있다.

5) 성재동의 광주안씨(廣州安氏)

산서면 오성리 성재마을에는 현재 광주안씨가 20여호 살고 있다. 고려말에 문과(文科)를 거쳐 보문각직학사(寶文閣直學士)와 상주판관(尙州判官) 등을 지냈고, 근세 조선조에 들어와서 태종때 좌참찬(左參贊)에까지 올랐으며, 칠도(七道)의 관찰사를 거치는 동안 청백사(淸白史)로서 명성을 얻어 청백사록에 제 1위로 기록되기도 했고, 또한 태종 임금께서 어필(御筆)로 당시 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특히 출척리라는 어사와 다름없는 특권까지도 부여하는 왕지(王旨), 안성위가정대부 강원도 도관찰출척사 염감령 안집전론 권농 관학 제조 형악 병마 공사자 영악 12년 4월 22일의 특전을 받은 천곡(泉谷) 안성(安省; ?~1421, 시호는 사간)의 후손이다.

안성(安省)의 사대현손(四大玄孫)이며 연산군 7년(1501)의 생원이 안승효(安承孝)가 이곳 월곡세거의 창원정씨 집안으로 장가든 것을 계기로 광주로부터 산서에 들어왔으며, 그의 장인은 유현 정황의 조부인 정혼이다.

그 후 안승효 현손인 안계생(安繼生)이 성재동으로 이거했으며 현재 성재마을에 사는 광주안씨는 안계생의 후손이다. 그는 무과출신으로 관직은 군자감정(軍資監正)이었는데, 그의 외가는 장수세거의 연안송씨(延安宋氏)였다. 1950년대만 하여도 50 여호가 살았다고 하며 1930년 10월의 조사 당시 35호가 있었다. 2009년 10월 현재 성재에 17호, 강치에 1호, 방화에 5호, 오성리에 23호가 살고 있으며 산서면 일대에는 26호가 살고 있다.

6) 사창의 부안김씨(扶安金氏)

산서면 사상리 사창마을과 하월리에 왜정때만 해도 50여호의 부안김씨가 살았다고 하는데 현재는 9호가 남아 있다. 1930년 10월의 조사에는 23호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사창의 부안김씨는 김지백((金之白, 호: 담허재(澹虛齋), 인조 26년

(1648))의 생원의 후손으로 이곳 사창출신인 김한익(金漢益)은(순조 2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참판을 지냈다) 김지백의 7세손이다. 김지백의 선대는 오늘날의 남원시 산동면 목동에 살았다. 1589년(선조 22년)의 문과출신으로 충청도사와 양광군수 등을 지냈고, 특히 임진 정유의 왜란 중에 공을 세운 김익복(金益福; 1551~1599)이 목동김씨의 입향조이다.

위의 김지백은 김익복의 손자이다. 김지백은 처가가 산서면의 월곡정씨였으며, 장인은 성품이 강직한 선비로 유명한 유현 정황의 증손이다. 그가 산동면 목동으로부터 정씨촌인 산서면 하월곡으로 이거했던 연유도 여기에 있다. 뒤에 자손들이 이웃 사창마을로 옮겨 살면서 현재는 하월리보다 더 많이 살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산서면내의 부안 김씨 거주현황을 보면 사창에 7호, 하월에 2호, 살고 있으며 산서면일대에 23호 거주하고 있다.

7) 오성리 강치의 여산송씨(礪山宋氏)

산서면 오성리 강치마을에는 여산송씨가 20여호 살고 있다.

송록대부(崇祿大夫) 판돈영부사(判敦寧府使) 여량부원군(礪良府院君)이며 단종의 국구(國舅)인 송현수(宋珰壽; 호號 죽헌竹軒, 관향貫鄉, 여산礪山)의 후손이다. 공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로 인해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과 운명을 같이했다.

1457년(세조 3년 정축)에 삭탈 관직후 사사(賜死)되었으나 1698년(숙종 24년 무인)에 단종이 복위되어 관직이 회복되고 시호를 정민(貞愍)으로 내림과 동시에 불조지전을 허락하여, 산서면 오성리에 그 자손들이 불조묘를 세워서 선조를 숭앙하여 자손의 도리를 지켰다. 1930년 10월의 조사에는 30여호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때부터 80년이 지난 2009년 10월 현재 여산송씨 거주 현황은 강치마을에 20호, 방화마을에 2호, 쌍계 양신마을에 1호 등 23호가 살고 있으며, 산서면일대에는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8) 대창의 전주이씨(全州李氏)

산서면 신창리에 거주하는 세칭 '대창이 이씨' (전주이씨)는 모두 30여호 살고 있다. 근세 조선조 9대 성종의 아들인 안양군(安陽君)의 5세손이자, 18대 현종의 후손이다. 2009년 10월 현재 대창마을에 15호, 신덕마을에 3호, 용암마을에 1호 등 19호가 살고 있다.

9) 백운리 죽도의 함양오씨(咸陽吳氏)

산서면 백운리 죽동(신월)과 그 주변마을에 함양오씨가 13호 살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옛날에는 40여호가 넘었다고 한다. 남원에서 들어온 병조좌랑(兵曹佐郎) 오세득(吳世得)의 후손이다.

10) 건지리 진전의 함평모씨(咸平牟氏)

산서면 건지리 진전 마을에는 함평모씨가 23호 살고 있다. 고려말, 충신 정몽주(鄭夢周)의 문하생으로 수학했으며, 1477년(태종 17년 정유)에 문과에 급제하여 검상사인(檢詳舍人) 좌사간(左司諫) 등의 관직을 역임했고,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출천대효(出天大孝) 소리를 들었던 절강(截江) 모순지(牟恂之)의 후손이다.

모순지의 고손인 양성재(養性齋) 모중례(통훈대부<通訓大夫>)가 1506년에 진주로부터 이곳 산서면 월곡으로 이거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5, 6년 후 어느 날 난데없이 노적봉에 씌워 놓 유주방이가 바람에 날려 지금의 진전마을까지 와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양성재는 유주방이 떨어진 이곳에 세거하면서 양자손(養子孫)할 곳이라 믿고 새 터를 잡아서 살게 됐다고 하며, 현재까지 12대를 살면서 진전마을을 함평모씨의 취락으로 형성했다는 것이다.

자손들은 마을 앞에다 사액정려인 선조 모순지의 효자려를 갑술년(60여년전)에 세워서 숭앙하며 자손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행장에 의하면 어머니가 병환으로 고생할 때 대변을 맛보고 하늘에 기도하여 효험을 보았고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장례 행렬이 강을 건너려 할 때, 갑자기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 건너지 못하게 되어 양천통곡(仰天慟哭)하자 강물이 갈라져서 무사히 장사를 치렀는데, 하늘도 순지의 효성에 감동하여 강물까지 갈라놓았다고 한다.

그래서 공의호를 ‘끈을 절(截)’, ‘물 강(江)’ 해서 절강이라 했다고 전한다. 1989년 8월 현재 진전마을을 위시해서 장수읍 대성리 일대, 번암면 노단리 일대에 40여호의 함평모씨가 살고 있다. 1996년말에는 20여호가 살았다.

11) 마평 전의이씨(馬坪全義李氏)

산서(山西) 마평(馬坪)은 덕유산(德裕山) 줄기 따라 이어온 상서산(上瑞山) 기슭에 자리한 전의이씨(全義李氏) 집성촌(集成村)이다. 가풍(家風)은 부조(父祖)의 가르침 효우정신(孝友精神)에 바탕 하여 양생송사(養生送死)에 정

성을 다하며, 대인관계에 신의를 존중하고, 토양이 박토(薄土)라 갈아도 의식(衣食)이 부족(不足)하고, 살아도 사지(四支)가 고달파도 면면(綿綿)히 이러오는 법도(法度)를 어기지 않고, 근면(勤勉)으로 살아가며 자연을 벗 삼아 수백년(數百年)을 이어 살아왔다. 입향조(入鄕祖)는 진사(進士) 이제현(李齊鉉)으로 전의(全義) 세가야(世家也)라 공(公)의 8대조(八代祖) 석탄선생(石灘先生) 문정공(文貞公) 신의(愼義)가 도학절의(道學節義)와 관업(官業)이 위세소추(爲世所推)하고, 왕부 엽(王父燁)이 문과급제(文科及第) 병조좌랑(兵曹佐郎) 실록찬수관(實錄纂修官)이다. 진사공은 영조 갑신(英祖 甲申)에 광주(光州) 쌍촌(雙村)에서 태어나 정조 을묘(正祖 乙卯)에 성균진사(成均進士)에 합격한 후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절의과업(絕意科業)하고 양자손(養子孫) 목적(目的)으로 이곳 마평(馬枰)에 새 터전을 마련코자 아우 구현(久鉉)과 함께 이거정착(移居定着)했다. 세상(世上)이 변(變)하여 후손들은 도시(都市)로 진출(進出)하고 현재(現在) 10여호(余戶)만이 200여년 내려온 터전을 조용히 지키고 있다.

다. 변암면의 씨족취락

1) 노단리의 흥성장씨(興成張氏)

변암면 노단리는 그 역사가 오래된 장씨 취락으로써, 세상에서는 그곳의 흥성장씨를 ‘노단리 장씨’라고 부르기도 한다. 1930년 10월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노단리에만 188호가 살았으며, 변암면 전체로는 246호가 살았던 것으로 나와 있다. 1970년대 중반에는 변암면 일대에 흥성장씨가 360여호 살았다고 이곳 장씨들은 말한다.

2009년말 현재 조사한 것을 보면 노단리의 노단에 39호, 하노단에 15호, 신기에 20호, 논곡리에 31호, 유정리의 사치에 28호 등 133호가 몇 곳에 집단으로 살고 있고, 변암면 일원에는 모두 155호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노단리를 위시한 변암면 일대에 살고 있는 흥성장씨는 전부가호를 늘재(訥齊)라고 하였던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장승세(張升世) (1530~1608)의 후손이며 그 중에서는 공의 큰 아들 장환의 후손이 많다. 호를 용계(龍溪)라고 하였던 장환(1583~1629)은 유현 정황의 문인으로 1612년(광해 4년)에 진사에 합격한 후 관계에 들어가 형조좌랑(刑曹佐郎) 사헌부 감찰장성부사 등을 지냈다. 그 사이 공은 인조 2년 아괄의 난(亂)때 의병을 일으켰고, 특히

인조 14년(1636) 겨울 병자호란(丙子胡亂)때에는 의금부 도사로서 왕을 등에 업고 얼어붙은 한강을 건넜다. 장환은 당시의 남원 둔덕에서 살았으나 그의 후손들은 얼마 후에 당시의 남원 땅인 하변암 즉 오늘날의 장수군 변암면의 남쪽으로 이거하였던 것이다. 흥성장씨가 남원에 들어온 것은 장환의 7대조 장합(張合)때부터이며 그 뒤부터 남원의 각지 특히 주포(남원군 주생면) 둔덕과 변암 등지에서 크게 번창하였다. 지금도 노단리에는 1763년에 영조대왕이 추담(秋潭) 장현경(張顯慶)에게 친필로 시 한 수를 써주었는데, 그 어서(御書)를 모신 어서각(御書閣)이 있다.

2) 동화리 상동의 분성(김해)배씨(盆城(金海)裴氏)

변암면 동화리의 상동마을에는 분성배씨가 17호 살고 있다. 1930년 10월의 조사 당시에는 이 마을에 35호정도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 가장 많이 살 때는 60호가 넘었다고 한다.

2009년 10월 현재 상동에 117호, 변암면 일원에 모두 30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 나와 있다. 분성 배씨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에 입향조 배영필공이 경상도 합천에서 운봉을 거쳐 이곳 상동에 터를 잡은 것이 시초인데 누대를 살아가는 동안 상동은 분성배씨 취락을 형성하게 됐다고 한다.

3) 사암의 옥천조씨(玉川趙氏)

변암면 사암마을에는 옥천조씨가 318호 살고 있다. 이 마을의 호수가 50여호 되는데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 마을에는 다른 성씨가 거의 한 집도 살지 않는 조씨취락(趙氏聚落)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조씨취락이 처가를 따라 살게 되고 또한 연고를 찾아와 사는 타성바지가 있어서 지금은 혼성취락이 됐지만 아직도 사암에는 옥천조씨들이 집단을 이루고 세거하고 있다. 옥천조씨의 선대는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정유재란 때 남원시 대산에서 살다가 난을 피해서 첩첩산골인 이곳 사암으로 들어와 새 터를 잡은 것이 시초라고 한다.

라. 장계면의 씨족취락

1) 월강리의 영산김씨(永山金氏)

장계면 월강리 도장골과 이웃 신기와 장계면 일원에 13여호의 영산김씨

가 세거하고 있다. 찬성공(贊成公) 김종경(金宗敬)의 7 세손인 김종일씨가 오래 전에 충청도 영동에서 들어와 수대를 세거한다고 전한다.

2) 송천리 서변의 전주이씨(全州李氏)

근세조선 3대왕인 태종의 다섯째 아들 경녕군(敬寧君) 비의 4세손으로 1591년 지례현감(知禮縣監)을 지낸 바 있는 이희양(李希讓)과 그의 아들 도암(陶庵) 이경광의 후손이 이곳 장계면 서변(西邊)마을을 중심으로 인근마을에 30여호 살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의 전주이씨(경녕군손)의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변에 8호, 도장에 2호 등 모두 11호가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서변마을만 해도 30호가 넘었으며, 전주이씨 일색이어서 세칭 '서변이씨'로 불렸다고 한다.

호를 망화당(望華堂)이라고도 하는 이경광은 1592년 임란이 일어나자 현감을 그만두고 와병으로 신음하는 부친(희양)을 등에 업고, 모친과 함께 장수현 임내면 도지촌으로 와서 그곳에서 전란을 피했다. 전란이 끝나자 도지촌에 눌러 앉아 학업을 숭상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한편 망화당이라는 학당을 세워 후학양성에 힘썼다.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수혈을 하는가 하면, 돌아가시자 묘소 옆에 여막(廬幕)을 꾸려 놓고 3년간 시묘살이를 했으며, 상기(喪期)를 마친 다음해 모친이 작고하자 또다시 3년간 시묘살이를 하는 등 하라는 벼슬(군자금주부(軍資監主簿))도 마다하고 효행의 길에만 정성을 쏟자, 사람들은 공을 일러 출천대효라 했으며 노막이 있던 곳을 이효노동(李孝蘆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광해9년에 공이 세상을 뜨자, 장수 유림들이 서변마을에 있는 도암사(道巖祠)에 배향했다. 세칭 '서변이씨'들은 이렇듯 훌륭한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효」를 행실의 으뜸으로 삼는다고 한다.

3) 금덕리의 동래정씨(東萊鄭氏)

장계면 금덕리에 동래정씨가 과거에는 많이 살았다는데 2009년 10월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위동, 침동, 범덕골에 14호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세조선 9대 성종조의 문신(文臣) 정란종(鄭蘭宗)(1433~1489)의 후손으로 입향조는 정란종의 증손인 정유조(鄭惟祖)라고 한다.

또한 이곳에 들어온 동래정씨를 별족(閥族)하게 했다는 대호명당(大虎名堂)에 얹혀진 이야기가 있는데 손씨부인(입향조의 부인이라고 전함)이 친가

의 묘자리(대호명당)를 기지로 꾀를 부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후부터 밀양손씨의 세는 약해졌다고한다.

4) 범덕골(호덕)의 연안이씨(延安李氏)

장계면 범덕골을 위시해서 주변마을에 연안이씨가 3여호 살고 있다. 이들은 근세조선 9대 성종 2년의 좌리공신(佐理功臣)이요, 후에 여러 판서직을 지낸 청백리 이승원(李崇元)(1428~1491)의 후손인데 이승원의 후손 이홍한(李弘漢)이 경상도 거창으로부터 200여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마. 천천면 씨족취락

1) 평지의 연안송씨(延安宋氏)

천천면 평지를 위시해서 장수일원에 산거하는 연안송씨(延安宋氏)는 세종조에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서 예조판서를 지낸 퇴휴재(退休齋) 송보산(宋寶山)(월강사배향)과 그의 아우 송수산(宋壽山)의 후손이며 이 두분이 입향조이다.

그러므로 장수에서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씨족의 하나이다. 그리고 그 수에 있어서도 변암 세가의 홍성장씨와 더불어 가장 많았던 집단이다. 1930년 10월 1일의 조사보고에는 연평리와 오봉리에 연안송씨가 107호 살았던 것으로 되어있으며, 8·15 광복전에는 130여호 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평지에 20호, 구신에 11호, 오옥에 12호 등 모두 43호가 살고 있으며, 북 4개면(천천, 장계, 계남, 계북) 일원에는 아직도 100여호 이상이 살고 있다. 송보산(宋寶山) 후예의 연안송씨를 세간에서는 ‘평지송씨’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50여호 되는 마을에 타성바지는 한집도 없었다하며 현재도 30여호 중에 타성바지는 대여섯 집 살고 있다.

2) 고금의 청주한씨(淸州韓氏)

천천면 봉덕리 고금마을을 위시해서 춘송리 등 주변 마을에는 1930년 10월 당시만 해도 청주한씨가 100호 살았던 것으로 기록 됐는데, 1989년 8월의 조사에는 고금에 17호가 살고 있고, 천천면 일대에 50여호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곳의 청주한씨는 모두가 일찍이 남원의 어은동(오늘날의 임실군 삼계

면 어은동)에 들어온 안양공 한종손(韓終孫)의 후손이다. 한종손의 4세손 한충헌(韓忠獻)이 입향조라고 한다. 1996년말 천천면일원에 50여호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 계남면의 씨족취락

1) 범의 터(호덕)의 함창김씨(咸昌金氏)

함창김씨가 장수에 입거한지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세조선4대왕인 세종조에 사간원사간, 예조참의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헌부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지낸 뒤에 태생지인 장수 고을 침령으로 돌아와서, 이 고장 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으며, 백장, 황희, 송보산, 김남택, 박수기, 이정광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좌도인맥(湖南左道人脈)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했던 손재(孫齋), 김남택(월강사배향)을 입향조로 받들고 있는 이곳의 함창김씨는 계남면 범의 터에 광복전만 해도 40여호 살았다하며, 1930년 10월의 조사에도 25호가 살았던 것으로 돼 있는데 2009년 10월 현재는 범의 터를 중심으로 이웃 마을에 모두 20여호 살고 있고, 장수 일원에는 40여호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2) 중방의 남원양씨(南原梁氏)

2009년 10월 현재의 조사에 의하면 계남면 화양리 중방마을에 남원양씨가 15호, 난평마을에 8호, 한거마을에 9호, 곡리마을에 10호 등 4개 마을에 집단거주 호수가 42호이며, 계남면 일대에는 120여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용성군 주운(龍城君 朱雲)의 후예인, 진사 양석하(梁碩廈)의 후손이다. 향리인 계남에 흥학당(興學堂)을 세워 후학 양성에 전력하여 고명한 인재를 배출했으며, 장수 읍규와 향약조례(향약대부)를 만들어 예도와 질서를 바르게 하여 향선생으로 추앙받은 영조때 생원이며, 대학자인 양심헌 양성린(梁聖麟)도 양석하의 후손이며, 이곳 출신이다.

3) 명동의 문화류씨(文化柳氏)

계남면 화양리 명동마을에는 류세지(柳世祉)의 후예인 문화류씨가 11호정도 살고 있으며, 인근 마을까지 합하면 20호정도 살고 있다.

문화류씨가 이곳에 들어온 지는 300년이 넘으며, 근세조선 3대왕인 태종때 우상(右相)을 지낸 류량(柳亮)(1354~1416)의 6세손인 류세지가 입향조다.

충청도 청산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1996년말에는 26호가 계남면 일원에 살고 있었다.

4) 고정리의 전주최씨(全州崔氏)

계남면 화양리 고정마을의 전주최씨는 9호정도 살고 있으며, 인근마을을 합하면 40여호 살고 있다. 이들은 만육공(晩六公)으로 불리 우는 고려말의 문신 최양의 후손이고 남원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1996년말 40여호가 살고 있었다.

5) 양지편의 보성오씨(寶城吳氏)

계남의 보성오씨는 1930년의 조사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집안 대표의 말에 의하면 과거 한 때 양지편을 중심으로 오씨가 많이 살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양지편 마을을 위시해서 이웃마을에 1996년말 15호정도가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5호정도만 살고 있다. 입향조는 임란때 경상도 합천에서 오세의(吳世義)이다.

6) 침곡의 안음서문씨(安陰西門氏)

계남면 침곡리의 북실마을과 면은 달라도 이웃마을인 장계면 원무농(모링이)에 안음서문씨가 12호정도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선조 25년) 임진왜란때 생원 서문표가 경상도 안의에서 계남 침곡에 들어와 의병을 초모하여 왜병과 대적하다 역부족이어서 지금의 장계면 동정마을옆 비탈에 있는 굴에서 피신한 후 이곳에 눌러 앉은 것이 시초라고 한다. 지금도 서문표의 피난굴을 '서문씨굴(西門氏窟)' 이라고 한다.

7) 음신(음지섭발)의 반남박씨(潘南朴氏)

계남면 신전리 음신 마을에 현재 19호정도의 반남박씨가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60여년전에 호장공의 후예인 신필공(伸弼公)이(부설공파) 전남 영암땅 반남에서 이곳에 들어와서 현재 12대를 세거한다고 전한다. 2009년말 현재 20여호 살고 있다.

8) 양신(양지섭발)의 김해김씨(金海金氏)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때 「사야」로 불리는 일본인이 출전하였다가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선조로부터 시호와 이름을 모하당(慕夏堂) 김충선(金忠善)으로 하사 받은 그의 후손인 김해김씨가 계남면 신전리 양신마을과 궁평마을에 12호정도 살고 있다.

9) 궁양리(弓陽里)의 전주박씨(全州朴氏)

계남면 궁양리에는 전주박씨가 1996년말 15호 정도가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원장안리에 1호, 양지편에 1호가 살고 있다. 경덕재(經德齋) 종수(從壽)의 후손인 진사 삼윤(進士三胤)이 전주(全州)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누대(屢代)를 세거(世居)하고 있다.

10) 화산(花山)의 충주박씨(忠州朴氏)

충주박씨가 장수에 들어온 것은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선생(1429~1510)이 50대에 정계에 은퇴하여 노평(蘆坪)에 자락정(自樂亭)을 짓고, 계남가산(杞山-箕山)에 터를 잡아 산 것으로 시작된다.

그의 아들 습독(習讀) 박지견(朴枝堅)은 만년에 화산 안락재(安樂齋)를 지어 후학 양성에 힘쓰니 자손이 늘려 살게 되었고, 현손(玄孫)인 강암(康菴) 박종빈(朴宗彬)이 처음 요전(堯田)에 터를 잡아 모훈재(慕勳齋)를 지어 강학(講學)하니 자연히 박씨촌(朴氏村)이 되었다.

옛날에는 세 동네를 중심으로 계남면에 근 100호가 살았고, 장계 무농리를 중심으로 다수가 있었는데 최근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가산과 호덕(好德), 신내(楓川), 내동(內洞)에는 한집도 없고, 화산 8호, 조곡 1호, 무농 1호, 장계 6호, 장수 4호, 계북, 백암, 어전에 7호, 천천 박실에 1호 등 30여호만 남아 있다. 한편 종가(宗家)인 충원군파(忠原君派)는 일찍이 상주(尙州) 황간(黃澗) 등지로 떠나고 한집도 없다. 자락정서(自樂亭序)에 보면 아들 손자 있음이여 끝없는 복이로다(有子有孫 無疆福兮)라고 했는데, 출향자손(出鄉子孫)과 대전, 광주의 출계자손(出系子孫)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화산리에 문화재자료 34호인 화산사(華山祠)가 있다. 화산사에는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문간공(文簡公) 눌재(訥齋) 박상(朴祥), 문간공(文簡公) 충암(沖菴) 김정(金淨), 안재(安齋) 박지견(朴枝堅), 문충공(文忠公) 사암(思菴) 박순(朴淳), 육류정(六柳亭) 박지효(朴之孝)의 육현(六賢)을 모시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계남면내의 9개 씨족(氏族)집단 중 보성오씨(寶城吳氏)를

제외한 8개 씨족은 1930년 10월의 조사에도 나와 있는데 6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씨족마다 호수(戶數)가 줄었고, 씨족취락(氏族聚落)으로서의 의미가 약해졌다.

사. 계북면의 씨족취락

1) 어전의 금계한씨(錦溪韓氏)

계북면 어전리(늘밭)에 금계한씨가 30여호 살고 있다. 광복전만해도 150여호 되는 어전마을에 타성바지가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금계한씨를 ‘느랏한씨’라고 부른다. 문충공(文忠公)「교」의 후예이며, 사옹원 주부(主簿)벼슬을 지낸 한사우공(韓思祐公)이 17세기 중엽에 금산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한다.

제 3 절 성씨(姓氏)

1. 성씨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성씨는 이미 단군 조선때부터 있었다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전하고 있으며 예맥의 군장(君長) 여수기(余守己)의 아들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徐氏”라는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신라의 초기에는 6촌의 부족사회를 이룩하고 살다가 알에서 나왔다는 「혁거세」를 왕으로 모시면서 국가의 면모를 형성했으며,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는 6村을 6部로 고치고 성씨를 하사했다.

육촌명	육부명	성	육촌명	육부명	성
알천양산촌	양부	이씨	자산우진촌	본피부	정씨
돌산고허촌	사양부	최씨	김산가리촌	한지부	배씨
무산대수촌	점양부	손씨	명활산고야촌	습화부	설씨

또한 신라의 왕족에는 박, 석, 김이라는 3성이 있고, 고구려의 왕족에는 국호인 고구려의 “고”자를 성씨로 붙였다. 이렇듯 삼국시대와 그 이전의 고대에는 왕족이나 그 반열(班列)에 있는 일부 귀족층에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 성씨를 가졌던 것 같다.

사기(史記)에 보면 백제는 13대 근초고왕(近肖古王)(346~375)때부터 신

라는 24대진흥왕(眞興王)(540~567)때 부터 고구려는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일찍부터 열렸으므로 건국초 동명성왕(東明聖王)(BC 37~19)때부터 성 씨를 갖은 것으로 알려 졌다. 고려시대의 귀족계층에서는 성씨 외에 본관까지 구별하게 됐다.

또한 고려왕실계를 기록한 선원록(璽源錄)을 본받아서 족보까지 갖게 됐는데 선원록은 족보의 효시이다.

성씨가 서민층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중엽 이후인 듯하며, 족보가 일반화된 것은 고려 말에서 근세 조선중엽초로 알려지고 있다. 근세조선 영조때 (1724~1776)문간공 이의현(文簡公李宜顯)이 쓴 문집에는 우리나라 성씨를 298성으로 보았고, 『증보문헌비고』에는 496종을 수록하였다.

그후 고종 때 발간된 문헌비고 증보판에는 466종의 성씨가 수록됐다. 1971년 청조(淸朝) 간 “한국성씨대관”에는 한국의 성씨 252종에 본관 795종이 수록됐으며 그중 전북의 성씨는 163종이 나와 있다.

최근 2000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성씨와 인구수를 보면 1985년 발표 당시보다 성씨의 숫자가 12개 늘었다. 그 때는 274개였는데, 이번은 286개가 되었다. 우리나라 10대 성씨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김(金) 이(李) 박(朴) 최(崔) 정(鄭) 강(姜) 조(趙) 윤(尹) 장(張) 임(林)...

“김(金)” 씨는 우리나라 인구의 21.6%인 992만 여 명이고, “이(李)” 씨는 그보다 훨씬 적은 14.8%로 679만 여 명으로 조사되었다. “박(朴)” 씨는 또 그보다 훨씬 적은 8.5%로 389만 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잇는 “최(崔), 정(鄭)”씨는 4% 대이고, “강(姜), 조(趙), 윤(尹), 장(張)” 씨는 2% 대, 그리고 “임(林)” 씨부터 21위 “전(全)” 씨까지 1%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성씨별 인구수가 거의 일정한 차이를 유지하며 계속 나열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장수군의 성씨

1996년도 기준으로 장수군내 에 분포되어 있는 성 씨는 98종이며 170본이다. 98종의 성 씨는 다음과 같다.

金, 李, 朴, 崔, 黃, 鄭, 丁, 程, 韓, 劉, 柳, 俞, 白, 徐, 曹, 趙, 申, 愼, 文, 吉, 孫, 都, 具, 陸, 史, 呂, 余, 池, 毛, 嚴, 邵, 蘇, 千, 昌, 冷, 宋, 林, 賓, 高, 洪, 車, 馬, 河, 裴, 郭, 全, 田, 南, 張, 吳, 權, 魯, 許, 孔, 梁, 安, 卞, 禹, 尹, 成, 姜, 荀, 陳, 秋, 朱, 宣, 龍, 沈, 廉, 羅, 蔡, 景, 那, 鞠, 房, 牟,

晉, 閔, 盧, 邊, 場, 王, 太, 玄, 琴, 董, 西門, 印, 殷, 元, 表, 康, 奇, 鮮于,
延, 秦, 辛, 咸

당시 가구별로 조사된 성씨 현황을 분석해 보면 김해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씨, 경주김씨 전주최씨, 광산김씨 순으로 많은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역사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씨 체계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는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을 시행하여 구 호적체계는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고 새로운 등록 제도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게 되어있었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 아버지의 성도 따를 수 있도록 성씨 제도가 바뀌었다.

특히 전국적인 현상에 장수군도 외국에서 시집와서 가정을 이루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한국식 이름을 등록하게 되어 희귀 성씨가 등장하고, 전에 없었던 외국식 성이 쓰이게 되었다.

참언 하자면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시행 이후에 호주 제도는 폐지되고 개인별 등록제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 증보판에 수록하는 장수의 성씨 현황은 호주를 중심으로 조사된 내용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를 수록하였다. 또한 본적별 구분은 생략하였다.

【장수군에 거주하는 10 대 성씨】

(단위: 명)

김(金)씨	이(李)씨	박(朴)씨	정(鄭)씨	최(崔)씨	한(韓)씨	양(梁)씨	장(張)씨	강(姜)씨	송(宋)씨
4,346	3,158	2,218	1,120	1,003	690	688	625	611	554

2010년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극소수 인구의 성씨는 국(鞠)씨, 나(那)씨, 은(殷)씨, 함(咸)씨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성씨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귀화한 사람들 중에 한국이름을 갖지 않고 그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3월현재 결혼 이민자 가족은 200~3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아직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은 261명으로 나타났다.

【장수 외국인 거주 현황(2010.3월)】

행정기관	총계	소계(여/남)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총계	261	261 143/118	21 21/0	34 24/10	36 22/14	169 76/93
장수읍	94	49/45	0/1	10/0	9/2	25/39
산서면	29	22/7		3/0	3/1	6/3
번암면	17	12/5			2/0	9/2
장계면	60	16/44		1/0	4/5	10/34
천천면	33	24/9		6/0	2/2	14/7
계남면	16	11/5		1/0	3/0	4/5
계북면	12	9/3			1/0	8/3

3. 읍·면 성씨별 인구수

NO.	성씨	1997년 기준(호주 기준)								2010년 3월 기준(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총합계	9,432	2,413	1,231	1,231	1,799	1,022	951	785	24,132	7,296	2,710	2,747	4,814	2,385	2,406	1,774
1	강(姜)	270	91	24	41	45	20	28	21	611	215	44	80	134	44	47	47
2	강(康)	5				1		4		39	9			5	6	18	1
3	경(景)	4	2	2						5	1	2					2
4	고(高)	57	15	5	9	5	11	12		202	60	12	19	27	30	42	12
5	공(孔)	4	1				2	1		29	5		3	6	3	4	8
6	곽(郭)	20	6	5		5	3	1		72	22	10	7	20	6	6	1
7	구(具)	26	5	11	5	2	1	2		77	12	35	4	9	2	15	
8	국(鞠)	2	2							3	1			2			
9	권(權)	133	38	63	6	11	9	6		318	84	118	16	53	25	19	3
10	금(琴)	3			3					16	6		9			1	
11	개(奇)	3	2				1			22	9		3	7	2	1	
12	갈(吉)	4	1		1		2			32	11		4	6	3		8
13	김(金)	1,952	427	197	250	579	185	165	149	4,346	1,324	420	509	866	450	426	351
14	내(羅)	3	2					1		19	12			2	2		3
15	내(那)	3	1	2						1		1					
16	남(南)	3	2	1						21	5			9	4	3	
17	냉(冷)	1	1							-							
18	노(盧)	14		5			1	8		59	8	11		13	7	12	8
19	노(魯)	7	5		2					24	13		7	3		1	
20	도(都)	7	1		2		1	3		16	3	3	2	2		3	3
21	동(童)	-								3			3				

NO.	성씨	1997년 기준(호주 기준)								2010년 3월 기준(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22	룡(龍)	7	7							50	19					31	
23	류(柳)	154	69	14	9	4	17	28	13	272	147	1	23	79	1		21
24	륙(陸)	75	4	40		17	6	1	7	75	15			48			12
25	림(林)	142	39	26	42	21	14			189	97		76				16
26	매(馬)	10	5	4	1					34	18	11	2	2		1	
27	모(毛)	3	1				2			-							
28	모(牟)	9	9							39	9	13	10	4	1	1	1
29	문(文)	49	23		7	7	9	3		181	60	2	17	37	22	23	20
30	민(閔)	9	5				4			25	11	3	2	2	6	1	
31	백(朴)	988	239	54	94	315	115	81	90	2,218	699	133	210	469	288	244	175
32	방(房)	21	2	9	9		1			37	6	11	14	3	1	1	1
33	배(裵)	101	18	2	49		20	12		264	70	9	88	31	28	17	21
34	백(白)	100	62	2	17		13	6		330	205	12	30	28	40	11	4
35	변(卞)	10	2	1	5	2				15			5	4		4	2
36	변(邊)	2		1				1		12	2	7		1		1	1
37	빈(賓)	7	7							22	14			4	3		1
38	사(史)	1	1							4	2		2				
39	서(徐)	182	62	8	25	43	17	10	17	414	137	25	44	100	43	27	8
40	서문(西門)	55	1		1	30	10	13		103	9			47	17	26	4
41	선(宣)	5	1					4		13	4			1		7	1
42	선위(鮮于)	-								-							
43	성(成)	36	12	2	2		13	7		117	25	4	2	33	20	11	22
44	소(蘇)	31	2	9	19			1		66	8	21	29	2	2	2	2
45	소(邵)	1	1							-							
46	손(孫)	55	25	2		6	4	10	8	168	49	15	5	45	16	18	20
47	송(宋)	222	32	29	10	33	68	26	24	554	112	63	15	138	117	62	47
48	순(荀)	6	6					1		19	17			1	1		
49	신(愼)	3	1			1		4		26	3		1	6	13	3	
50	신(申)	128	67	9	17	14	17	5		339	137	24	38	82	11	29	18
51	신(辛)	5								70	16		3	22	3	17	9
52	안(安)	88	21	45	7	6	9			322	74	113	20	56	27	8	24
53	양(梁)	284	69	40	20	24	9	122		688	156	90	50	123	25	213	31
54	엄(嚴)	10	2	1	4		3			39	12	5	9	4	1	3	5
55	여(余)	2	2							-							
56	여(呂)	3	2	1						19	6	4		6	1		2
57	연(延)	-								4	2			1	1		

NO.	성씨	1997년 기준(호주 기준)								2010년 3월 기준(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58	염(廉)	2	1					1		16	5		2	6		3	
59	외윳	135	39	19	44	10	7	16		422	124	46	102	78	25	31	16
60	왕(王)	2		1			1			4				2	2		
61	우(禹)	40	8	1	15	3	13			114	24	2	21	24	28	8	7
62	원(元)	16	1			4	4	1	6	43	6	2		16	6	2	11
63	유(劉)	55	16	14	13	2	6	4		246	84	56	27	28	9	28	14
64	유(俞)	13	5		2	3		3		30	12		4	9	1	4	
65	윤(尹)	95	23	20	5	15	22	10		276	94	46	16	54	30	25	11
66	은(殷)	-								1				1			
67	애(李)	1,369	306	212	122	381	115	140	93	3,158	937	405	292	744	273	298	209
68	인(印)	2			2					9			4		5		
69	장(張)	-								11	11						
70	장(張)	281	37	33	171	4	15	21		625	107	53	273	68	48	53	23
71	전(全)	73	29	7		10	21	6		309	107	13	25	76	40	18	30
72	전(田)	9	7					2		37	10		3	11	7	3	3
73	정(丁)	58	3	53				2		171	35	91	1	21	16	4	3
74	정(程)	1	1							25	1			13	5		6
75	정(鄭)	412	91	40	60	75	59	35	52	1,120	308	91	123	272	117	95	114
76	조(曹)	49	12	1	2	6	12	2	14	160	73		5	29	26	12	15
77	조(趙)	143	41	16	41	22	9	6	8	411	99	48	89	79	30	28	38
78	주(朱)	24	7	2		3	3	6	3	90	26	8	2	36	3	9	6
79	재(池)	6	2		3			1		23	9	4	6	2			2
80	진(晉)	4		4						22	2	10		1	6	2	1
81	진(秦)	2					2			-							
82	진(陳)	12	5	2	2			3		52	6	4	4	13		8	17
83	채(車)	27	23	1		2	1			66	52			10	3	1	
84	창(昌)	6	4				1	1		10	6		1	1	1	1	
85	채(蔡)	27	5	3		2	7	10		79	7	4	3	17	18	29	1
86	천(千)	7	3				3	1		31	8			16	3		4
87	최(崔)	407	163	81	34	27	38	52	12	1,003	421	172	96	68	85	118	43
88	추(秋)	20	13	3	1	2	1			32	21	1	2	4	3		1
89	침(沈)	22	4	4	6	2	3	3		18	18						
90	태(太)	14	1	1		1	9	2		36	7	5	1	5	13	4	1
91	표(表)	3				1		2		9	1	1	1	4		2	
92	하(河)	41	23	6	3	3	1	5		92	43	3	7	12	9	7	11
93	한(韓)	297	72	46	12	36	62	27	42	690	160	97	29	136	119	62	87

NO.	성씨	1997년 기준(호주 기준)								2010년 3월 기준(명)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계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94	함(咸)	1						1		3	1	1				1	
95	해(許)	40	18	7	7	1	6	1		123	41	15	6	14	15	19	3
96	현(玄)	1		1						4	2	1				1	
97	홍(洪)	70	18	24	5	9	6	8		195	55	47	8	40	25	11	9
98	황(黃)	100	31	15	20	3	7	13	11	307	105	21	47	36	19	40	39
99	기타				4	1	1		215	1,416	327	241	186	325	123	120	94

※ 1997년은 호주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2009년은 인구수로 조사되었습니다.

제 4 절 언어(言語)

옛날에는 민간인(民間人)의 사회계급(社會階級)을 반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구분하고 직업적 측면에서 볼 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구분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양반과 상민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양반의 언어는 고상하고 언행이 일치하며, 심지어 하대(下待)말을 쓸 때도 체통을 손상시키거나 품위 없는 언사(言辭)는 삼가 하였다. 만일 언행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방사림(地方士林)의 풍속교화법(風俗敎化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된다.

가족과 친척 간에도 행렬(行列)에 따라 응분의 존대어를 쓰고 외인과는 20년의 장칙(長則)은 아버지와 같이 대접하고, 10년 장칙은 형과 같이 대접하며, 5년 장칙은 평교(平交)하는데 노인자제(老人子弟)의 경우는 5년 사이의 연장이라도 형으로 대접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이다.

상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식하고 예의와 도덕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 체통이나 품위를 생각지 않고 말을 함부로 지껄이는 경우가 많다.

언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어서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언어는 사람의 의사와 사상과 인격을 비추어 주는 거울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언어에는 생활환경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양식과 식수의 함유된 성분차로 인해서 말씨의 억양과 끝맺음과 자모음의 변화, 동일사물에 대한 다른 이름 등 지방마다 독특한 말투를 쓰는 사투리(方言)가 있다.

이 고장은 대체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3도의 경계 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3도 방언이 혼합하여 이곳 나름의 사투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태백정간(소백산맥)의 서쪽인 옛 백제의 땅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나 말의 끝을 약간 길게 빼는 것은 충청도 사투리가 가미된 것으로서 억양은 남이 들어서 어색하지 않고 비교적 호감을 주는 다정다감한 음조를 띄었으며 표준말에 가깝다. 이 지방 동부산악(소백산맥)의 골짜기 깊숙이 사는(장계면 오동, 대곡, 번암면 지지리) 사람들의 말에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약간 가미됐으나 영남쇠의 말에 비하면 억양이 아주 부드럽다. 대체로 이 지방은 인성이 온후하기 때문에 언어도 순박하나, 표준말에 비해 몇 가지 지방특유의 말투가 있다.

첫째 음운(音韻)의 변화이다.

- ① 옛날 훈민정음에있던 「△」음이 「ㅇ」과 「ㅅ」으로 발전했는데, 표준말에는 「ㅇ」으로 발음되고 이곳에서는 「ㅅ」으로 발음된다. 예)「가을」을 「가실」로, 「여우」를 「여시」로, 「무우」를 「무시」로 발음한다.
- ② 「ㄱ」음의탈락, 구개음화현상(口蓋音化現象)이다. 예)「길」을 「질」로, 「기름」을 「지름」으로, 「집」(비단)을 「집」으로 부른다.

둘째 말의 끝부분의 변화이다. 까→껴, 까→껴, 해→혀, 니다→서유, 시요 등으로 변화한다. 예)「합니까」를 「합니껴」로, 「하라니까」를 「하라니껴」로, 「그러니까」를 「그러니껴」로, 「멋지게 해」를 「멋지게 혀」로, 「그랬습니다」를 「그랬시유」, 「그랬시요」로 부른다.

셋째 어휘에서 볼 때, 예)「노을」을 「북새」로, 「새우」를 「새비」로, 「벼」를 「나락」으로, 「처녀」를 「가시내」로, 「총각」을 「머시매」로, 「월씬」을 「원훤이」로 부른다.

넷째 부드러운 말을 강한 발음으로, 옛 부인들이 이름대신 부르는 택호(宅號)인 「택」을 「뻘」, 혹은 「떡」으로 「계」를 「껴」로 부른다. 「담」을 「땀」(한마음의 중간골목을 경계로 「웃담」 「아랫담」 한다)으로 부른다.

언어란 생활의 표상인 것이다.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속에서는 순화된 언어가 나오게 되고 복잡하고 각박한 생활속에서는 거칠고 격한 언어가 나오게 마련이다. 사방이 산으로만 둘러싸여 이 지방 사람들은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지만 사시상절(四時常節)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며 살기 때문에 인심이 순후해서 언어도 부드럽고 소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내 정감을 준다.

제5절 읍·면과 마을의 유래

1. 읍면의 유래

가. 장수읍의 유래

장수읍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우평현(雨坪縣)의 관할구역에 속했으며, 통일신라 이후에는 757년(경덕왕〈景德王〉16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침에 따라 우평현을 고택현(高澤縣)으로 개칭했으며, 장수읍은 고택현의 관할구역에 있었다. 940년(고려태조23년)에 고택현을 장천현으로 고쳐 부르게 됐고 현청(縣廳)소재지를 현 천천면 남양리 앞 덕들 평전에서 현 장수읍 선창리로 옮겼다. 근세 조선조 초1413(태종 14년)에 장천현을 장수현으로 고쳐 부르면서 현청(縣廳)소재지를 선창리에서 장수리로 옮겼다. 이렇듯 장수읍과 고려초 장수현 시대 이후로 우금(于今)에 이르기까지 현청의 소재지로서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근세 조선말엽 이전에는 부, 군, 현내에 방을 두었으나 편의상 구역을 획정(劃定)하는데 불과했다. 이 시기에는 장수읍은 장수천 북쪽과 싸리재 남쪽 일원을 신촌읍 내방이라 부르고, 장수천 남쪽과 수분령 북쪽 일원을 신남방으로 부른 듯하며 1895년(고종 32년)에 전국에 23부331군을 두는 지방관제 개정으로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신촌읍 내방을 수내면으로, 신남방을 수남면으로 개칭하게 됐다. 1917년 면제(面制) 공포(公布)로 수내면과 수남면을 병합해서 장수면으로 불렀으며 이때부터 면이 말단 행정기구의 중요역할을 했다. 이어서 1979년 5월 1일 장수면은 장수읍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수읍은 태백정간(소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뻗다가 무룡궁재를 분기점으로 하여 맥을 이어서 노령산맥의 종산인 영취산(장안산)이 서쪽으로 높이 솟았는데 여기서 다시 맹호출림격으로 힘주어 뻗은 관주산(관두산)과 남산이 마치 대호의 자웅처럼 마주보는 언저리에 천년행화지(千年杏花地)로 알려진 장수고을터를 이루어 놓았다. 장수읍의 지형은 북동쪽으로 장안산과 법화산이 가로질러 북쪽은 계남면에 접해있고, 동남쪽은 장안산과 수분령(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이 경계가 되어 변암면과 접해있고, 서북쪽은 팔공산과 노령산맥이 가로질러 산서면과 진안군과 접해있고, 북쪽은 왕대들을 경계하여 천천면과 접해있다. 또한 수분령에서 발원하여 금강의 최상류를 이룬 남장천과 덕산의 길목인 밀목재에서 발원한 동장천은 장수리 하비에서 합류하여 장수 큰 들의 젓줄 역할을 하며, 들의 변방을 돌아서 천천면으로

흐른다. 그리고 남(변암면)과 북(계남면)으로 관통하는 19번국도와 서쪽의 산서면과 북쪽의 천천면으로 연결되는 719번 지방도는 장수읍의 동맥역할을 하며 읍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8km 지점에 있는 장안산의 일원과 용추만풍(龍湫晚楓)(장수팔경)으로 유명한 덕산계곡은 천하의 절경이다.

또한 이웃마을과 면, 군, 도를 사이에 두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정을 나누기 위해 한 번 다녀오거나 상행위(商行爲)를 위해 서로 왕래하면서 쉬어 넘던, 전설과 애환이 서린 재(고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삼거리재(노곡~덕산) ② 밀목재(동촌~덕산) ③ 자고개(용계~대성) ④ 고래재(두산~덕산) ⑤ 석고개(선창~노곡) ⑥ 싸리재(음선~계남, 신전) ⑦ 서구리재(용추동~임실, 성수) ⑧ 당재(수분~변암, 교동) 이다.

장수읍에서 분포돼 있는 성씨는 83성에 147 본이며, 김해김씨가 214호로 제일 많고, 밀양박씨가 199호, 경주이씨 106호, 전주최씨 125호, 전주이씨 111호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장수읍의 위치는 동경 127°~128° 와 북위 35°~36° 이며, 면적은 101.86km² 이고, 표고는 해발 430m이다. 인구는 2009년 현재 2,967 가구에 7,087명(남 3,548명, 여 3,53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13, 분리수(마을) 39, 자연 마을수(관할구역) 85, 반수 85이다.

【장수읍 행정구역표】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장수리	6	교 촌	1	상수명거리	두산리		두 산	2	본동
			2	본동				3	서쪽
			3	아건너				4	발방골
			4	영단거리	개정리	4	농 원	1	본동
		중 동	1	아건너				2	양지뜸
			2	구시장거리				3	상평
			3	본정통			와 동	1	와동
		준 비	1	핑계통				1	개정
			2	취락마을			개 정	1	용두
		하 비	1	본정통			하 평	1	하평
			2	본동	수분리	2	수 분	1	양지뜸
		남 동	1	아랫동네				2	음지뜸
			2	만쟁이			송 계	1	안담
			3	웃동				2	건너담
			4	다릿거리	송천리	4	송 천	1	아랫담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장수리	6	북 동	1	시장통	송천리	4	송 천	2	웃담		
			2	본동				3	건너담		
			3	본정통하			이 교	1	아랫담		
			4	본정통상				2	웃담		
노하리	4	노 하	1	웃대비			구 락	1	아랫뜸		
			2	아랫대비				2	웃뜸		
			3	봉강				3	건너뜸		
		신 기	1	시기			용 추	1	웃담		
			왕 대	1				왕대	2	아랫담	
			판 둔	1	판둔	용계리	2	용 계	1	음지뜸	
선창리	2	음 선	2	양지뜸							
			3	농원과 샛터							
	양 선	1	아랫대미	안 양	1			아랫대미			
		2	아랫대미		2			웃대미			
노곡리	6	신 리	1		웃담			3	건너담		
			2		아랫담			4	점촌		
		대 리	1	본동	대성리			4	대 성	1	대성
			2	다리건너						대 덕	1
		상 중	1	상중		2	금평뜸				
			하 중	1		하중	구 암		1	구암	
		신 촌	1	신촌		2			흑평		
			하 리	1		본동	필 덕		1	상필덕	
		2	밤실	2		하필덕					
		동촌리	1	동 촌	1	아랫뜸	식천리	1	식 천	1	남사
2	웃뜸				2	북사					
3	건너뜸				3	샛터					
덕산리	2	덕 산	1	원덕산	13 리	39	분리 (마을)	85 반	85 자연마을 (관할구역)		
		범 연	1	범연							
두산리	1	두 산	1	동쪽							

나. 산서면의 유래

근세조선의 고종조 이전에는 노령산맥의 웅봉(雄峯)인 팔공산(성정산<聖跡山>)의 서쪽 언저리에 있는 오성, 쌍계, 백운, 학산(동부<東阜>)마을 등을 산서방이라 하여 장수현의 관할구역에 속했으며, 고종 32년(서기 1895년)에 전국에 23부 331 군을 지방관제 개정으로 방(坊)을 면(面)으로 고치면서

신서면(身西面)이 수서면(水西面)으로 개칭했다. 1906년 남원시의 관할구역이었던 내진전(內眞田), 외진전방(外眞田坊)이 장수군으로 편입되면서 수서면에 병합되었다. 그 후 1917년 면제(面制)공포(公布)로 수서면을 산서면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면은 말단행정기구(末端行政機構)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산서면은 태백정간(소백산맥)의 일맥이 무룡궁재를 디딤돌로 하여 장안령봉을 병풍처럼 펼쳐놓았고, 다시 서쪽으로 뻗어 금강과 섬진강의 분수령인 수분치를 이룬 뒤에 줄곧 서쪽으로 달려가서 팔공명산(성적산)을 솟구쳐 놓았는데, 여기서 잠시 서남쪽을 굽어보면 팔공산(노령산맥)에서 남북으로 뻗은 양 줄기가 마치 암탉이 양 날개로 알을 품듯 오목한 넓은 분지가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듯 지세가 평탄해서 전답이 비옥하고 많은 야산을 개간할 수 있어서 군내에서는 곡창지대로 손꼽힌다. 산서면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북은 팔공산 넘어로 장수읍과 접해있고, 동남은 남노령과 천왕봉이 경계가 되어 변암면과 남원시 보절면에 접해있고, 서쪽은 신창리들을 가로지르는 실개천이 경계가 되어 임실군 지사면과 접해있고, 북쪽은 영대산 넘어로 진안군 백운면과 인접해 있다. 또한 산서면은 팔공산 서쪽으로 야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분지가 되어 수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시설이 잘 돼 있다. 백운산계곡과 마치재에서 흐르는 산서천(오수천 상류)은 산서들의 젖줄역할을 하며, 산서면을 십자로 관통하는 719번 지방도(장수읍~오수)와 721번 지방도(남원시 보절면~임실군 성수면)는 산서면의 동맥역할을 한다.

또한 이웃 마을과 면·군·도를 사이에 두고 정보를 교환하고 정을 나누고, 상행위(商行爲)를 하기위해 서로 왕래하면서 쉬어가던, 전설과 애환이 서린 재(고개)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① 방거재(하월~봉서) ② 원고재(봉서 고산~봉서 척동) ③ 원줄기고개(대창~하오 암가) ④ 지름쟁이고개(용암~사창) ⑤ 백제고개(시장~하오) ⑥ 달랑고개(구창~원흥) ⑦ 조치재(산서 초장~임실 성수면) ⑧ 움푹골재(산서 신월~장수 대성) ⑨ 고들치재(산서 구창~장수 필덕) ⑩ 성재발재(산서 구창~진안 백운면) ⑪ 박달재(산서 구창~임실 성수면) ⑫ 구수재(산서 동고~임실 성수면) ⑬ 넙덕골재(산서 능곡~임실 성수면) ⑭ 아침재(산서 오산~임실 성수면) ⑮ 비행기재(산서 원흥~장수 대성) ⑯ 영무재(산서 동고~임실 성수면) ⑰ 바랑재(산서 동고~임실 성수면) ⑱ 뒷재(산서 압곡~임실 성수면) ⑲ 수분이재(산서 오산~임실 성수면) ⑳ 감나무재(산서 신월~

임실 성수면 ㉑ 성남이재(산서 봉서~남월 보절면)이다. 산서면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는 61 성에 102본이며 전주이씨가 147호로 제일 많고, 김해김씨가 106호, 전주최씨 54호, 창원정씨 53호, 안동권씨 63호 순으로 살고 있다. 면적은 47.79km²이며 표고는 해발 155m이다. 위치는 동경 127도 30분, 북위 35도 36분이고 인구는 2009년 현재 1,180가구에 2,605명(남 1,291, 여 1,314명)이다.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14, 분리수(마을수) 34 자연마을(관할구역) 71, 반수 71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은 산서면의 행정구역표다.

【산서면 행정구역표】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오성리	3	방 화	1	웃담	건지리	2	월 강	1	월동		
			2	아랫담				2	강촌		
			3	등동				초 장	1	초장	
		성 재	1	성재			월 호	2	정착		
			강 치	1				강정	1	웃뜸	
				2				개치	2	아랫뜸	
쌍계리	2	양 신	1	양촌	마하리	2	진 전	1	진전		
			1	신평				1	동편담		
		마 평	2	마평			2	서편담			
사계리	2	서 원	1	서원	마하리	2	평 촌	1	웃뜸		
			2	왕촌				2	아랫뜸		
		왕 곡	1	왕촌			3	도평			
			2	반곡							
봉서리	1	봉 서	1	웃담	백운리	2	신 월	1	신흥		
			2	아랫담				2	웃뜸		
			3	척동			3	아랫뜸			
			4	신기			구 창	1	구흥		
사상리	2	사 상	1	웃담	학선리	4	용 전	1	용전		
			2	아랫담				압 곡	1	압곡	
		당 가	1	당동			구 암	1	웃담		
			2	가동			2	아랫담			
하월리	2	창 촌	1	창촌	동화리	5	동 고	1	상동교		
		신 등	1	신평				2	하동교		
이룡리	1	이 룡	1	웃뜸			동화리	5	시 장	1	본동
			2	가운데뜸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이룡리	1	이 룡	3	아랫뜸	동화리	5	시 장	2	교동
			4	약촌				3	면동
			5	용평				4	시장통
신창리	3	대 창	1	동편담			능 곡	1	능곡
			2	서편담			동 촌	1	동촌
			3	소창			등 석	1	웃등석
		신 덕	1	동편담				2	아랫등석
			2	서편담			봉 정	1	봉정
		용 암	1	용암				2	괴정
오산리	3	하 오	1	웃뜸	14 리		34분리 (마을)	71반	71자연마을 (관할구역)
			2	아랫뜸					
			3	암가					

다. 변암면의 유래

변암면은 구한말 이전에는 상변암방, 중변암방, 하변암방으로 부르면서 남원부의 관할구역에 속했는데, 이 때의 방은 편의상구역을 획정하는데 불과했다. 그래서 구역명을 부를 때 방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았던 것 같다. (예: 상변암, 중변암, 하변암 등) 그 후 1906년에 지방관제 개정으로 상·중·하변암(坊)은 남원시에서 장수군으로 편입됐으며, 고종 32년(1895)지방관제 개정으로 방이 면으로 개칭됨에 따라 장수군 변암면(교동, 국포, 죽산, 사암), 중변암면(죽림, 노단, 동하, 지지), 하변암면(논곡, 대론, 유정)으로 부르게 되었다. 1917년 면제(面制) 공포(公布)로 상·중·하변암면이 변암면으로 통폐합되었다. 이 때부터 면은 말단 행정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뒤 ‘반(磡, 시냇물이름)’이 ‘번(番)’으로 음이 와전됐으며, ‘반(磡)’자도 ‘번(蟠, 서릴반)’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반(磡)’자를 써도 된다.

변암면은 태백정간(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의 두메산골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있다. 주변에 백운산, 장안산, 팔공산, 대성산, 고남산이 동서남북으로 병풍처럼 둘러있다. 이렇듯 큰 산들이 첩첩으로 둘러 있어 수분계곡, 국포계곡, 사암계곡, 지지계곡, 유정계곡 등이 수 십리의 골짜기를 이루고,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가히 무릉선경(武陵仙境)을 연상케 한다. 계곡마다 흐르는 요천(蟾津江) 맑은 물은 노단(魯壇)에서 합류하여 변암들의 젓줄 역할을 하며, 유유히 남원으로 흐른다. 변암면의 지형은 동으로는

백운산과 경계를 이루어 경남 함양군 백전면과, 남원시 아영면, 운봉읍과 접해있고, 남으로는 대론들을 가로질러 흐르는 실개천으로 경계를 이루어 남원시 산동면과 접해있고, 북으로는 수분치와 경계를 이루고, 장수읍과 장안산과 경계를 이루고, 계남면, 장계면과 또 무룡궁재와 경계를 이루어 양면과 인접해 있다. 또한 전설과 애환이 서린 재(고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분재(변암 상교~장수 수분) ② 말치재(변암 동장~산서 마평) ③ 산배재(변암 도장~보절면) ④ 북치재(변암 도장~남원 산동) ⑤ 바구리봉재(변암 사암~장수 송계) ⑥ 남중치재(변암 삼거~경남 백전) ⑦ 퍼발재(변암 상동~장수 덕산) ⑧ 봉화재(변암 하동~남원 아영) ⑨ 아홉새들이고개(변암 하동~남원 아영) ⑩ 짓재(변암 신기~남원 아영) ⑪ 꼬부랑재(변암 두견~남원 아영) ⑫ 뒷재(변암 성암~남원 아영) ⑬ 당산고개(변암 수척~남원 산동) ⑭ 매요재(변암 사치~남원 운봉) ⑮ 밤재(사암~상하평) ⑯ 불바래기재(상평~임신) ⑰ 짓재(하평~죽산) ⑱ 동산별고개(하노단~신월) ⑲ 복성이재(신기~성암) ⑳ 꼬부랑재(논곡~성암) ㉑ 등치재(신원~대론) ㉒ 모래재(유정~사치)등 이다. 변암면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는 51 성에 118본이며, 김해김씨가 97 호로 둘째고, 홍성장씨가 177호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 셋째는 밀양박씨로 95호다. 변암면의 면적은 126.09㎡이며, 위치는 동경 127도 38분 2초~127도 26분 9초와 북위 35도 26분 9초~35도 38분 3초다. 2009년 변암면의 인구는 2,659명(남 1,330명, 여 1,329명)에 1,259가구가 살고 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11, 분리(마을)수 28, 자연마을수(관할구역) 61, 반수 61반이다. 다음은 변암면의 행정구역표다.

【 변암면 행정구역표 】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교동리	3	상 교	1	상교	노단리	5	원노단	1	웃뜸
		하 교	1	하교				2	도로변뜸
		금 천	1	동촌				3	회관뜸
			2	골몰				4	아랫뜸
			3	쇠골			하노단	1	하노단
국포리	3	도 장	1	도장			신 기	1	안뜸
		원 북	1	원북				2	바깥뜸
		국 포	1	상북			두 견	1	큰뜸
			2	하북				2	가운데뜸
			3	먹방				3	건천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죽산리	2	원죽산	1	동편	노단리	5	시동강	1	시장
			2	서편				2	동강
			3	회관뜸	녹곡리	2	성 암 녹 곡	1	복성
사암리	2	사 암	1	대성방				1	주암
			2	동편				2	회관뜸
			3	서편				3	큰뜸
지자리	3	삼 거	1	방화동	대론리	3	신 원	4	농원뜸
			2	하임신				1	샛터
			3	상임신				2	신평
동화리	2	상 동	1	원지				3	원촌
			2	삼거	유정리	2	대 론	1	양지
			3	독가촌				2	음지뜸
죽림리	1	죽 림	1	광대				1	웃뜸
			2	광대동편 · 어채				2	아랫뜸
			3	원지	11리		유 정	1	만항
죽림리	1	죽 림	1	아랫뜸				2	남양
			2	회관뜸				3	구선
			3	갈전뜸				1	안뜸
죽림리	1	죽 림	1	평지뜸	11리		사 치	2	바깥뜸
			2	미골뜸				1	만항
			3	속곰이뜸				2	남양
죽림리	1	죽 림	1	강변뜸				3	구선
			2	안뜸				1	안뜸
			3	속곰이뜸				2	바깥뜸
죽림리	1	죽 림	1	강변뜸	11리		28분리 (마을)	61반	61자연마을 (관할구역)
			2	안뜸				61반	61자연마을 (관할구역)
			3	속곰이뜸				61반	61자연마을 (관할구역)
			3	속곰이뜸				61반	61자연마을 (관할구역)

라. 장계면의 유래

장계면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해군(伯海郡<伯伊郡>)의 관할 구역에 속했으며, 통일신라 이후 757년(경덕왕 16년)에 군현의 명칭 변경에 따라 백해군을 벽계군(碧溪郡)으로 개칭했으며, 장계면은 벽계군의 관할 구역에 있었다. 940년(고려 태조 23년)에 벽계군이 벽계현으로 격하됐고, 995년(고려 성종 14년)에 벽계현이 장계현으로 개칭되었으며, 근세조선 1417년(태종 14년)에 장계현이 장수현에 병합될 때까지 장계면은 현청(동헌<東軒>) 소재지(노평들)로서 교통과 문물이 발달하였다. 근세 조선말엽 이전에는 부·군·현 내에 방을 두었으나 편의상 구역(區域)을 획정하는데 불과했다. 이 시기에 장계면은 임현내방(任縣內坊)으로 부르다 뒤에 노평(현청<縣廳>) 소재지) 동쪽을 계동방(溪東坊) 또는 임동방(林東坊), 서쪽을 계서방(溪西坊)

또는 임서방(林西坊)으로 불렸다. 근세조선 1895년(고종 32년)에 23부, 331 군을 두는 지방관제 개정에 따라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임현내면으로 고쳐 불렸다. 1917년 면제(面制) 공포(公布)로 임현내면을 계내면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면은 말단행정기구의 중요역할을 했다. 그 당시 장계천 이남(현 장계리, 동남동<동평들>과 남산마을)은 계내면에 속했으나 그 뒤부터 동남동(동평들)은 장계리에, 남산마을은 삼봉리에 편입되어 장계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면세(面勢)가 대폭 확장되었다.

장계면은 태백간(소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뻗다가 남덕유산을 이루는데 그 발치에 두문봉, 추락봉, 노고봉, 백화산 등 형제봉들이 정답게 둘러쳐져 있는 오목한 넓은 분지에 한들(大野)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렇듯 산간부에서는 보기 힘든 넓은 한들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자급자족은 물론 외화 획득의 주산물이 되기도 한다. 장계면의 지형은 동으로는 육십령과 경계를 이루어 경남 함양군 서상면과 접해 있고, 남으로는 동평들을 흐르는 실개천이 경계가 되어 계내면과 접해있고 서로 산정수동(山靜水動)하는 동정대(動靜臺)재와 경계를 이루어 천천면과 접해있고, 북으로는 김재(羅峙)와 경계를 이루어 계북면과 인접해있다. 또한 덕유산에서 발원한 장계천과 장안산에서 발원한 유천(柚川)이 장계면 한들의 젖줄역할을 하며 천천면으로 굽이쳐 흐른다. 또한 장계면 중심부를 관통하여 동(경남), 서(전주)로 연결되는 26번 국도와 남(남원), 북(무주)으로 연결되는 19번 국도는 면의 중심지인 장계리에 십자로를 형성하고 있어 동부산악권의 교통 요충지가 되고 있다. 또한 1993년 11월 1일 계내면을 장계면으로 개칭되었다. 다음은 재의 이름이다.

① 덜먹재(원금곡~가항) ② 아리랑고개(장계 장계~계남 구억밭) ③ 김재(羅峙)(장계 호덕~계북 압곡) ④ 육십령(장계 명덕~함양 서상면) ⑤ 노루고개(장계~천천)이다.

장계면에 분포돼 있는 성씨는 45성에 83본이며, 김해김씨가 317호로 제일 많고, 밀양박씨 283호, 전주이씨가 282호이다. 대곡리 주촌마을은 충절의 표상, 의암 주논개(朱論介)의 생가지이기도 하다. 장계면의 면적은 66.77km²이며, 표고는 해발 360m이다. 인구는 2009년 2,027가구에 4,727명(남 2,359명, 여 2,368명)이다. 장계면의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10, 분리(마을)수 30, 반수 78, 자연마을수 78이다.

다음은 장계면의 행정구역표이다.

【장계면 행정구역표】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장계리	7	동 동	1	해방촌			침 동	1	침동
			2	아랫담			호 덕	1	아랫담
			3	가운데담				2	웃담
			4	웃담	송천리	2	서 변	1	아랫담
		서 동	1	아랫담				2	웃담
			2	장계하숙골목			신 기	1	아랫담
			3	방천뚝				2	웃담
			4	거창여관골목	월강리	2	도 장	1	아랫담
			5	사거리				2	웃담
			6	회관골목			풍 저	1	풍천
		남 동	1	시장통				2	저동
			2	아랫장터	삼봉리	3	탑 동	1	탑동
			3	쌀점통			금 정	1	곡리
			4	방앗간골목				2	계한들
		북 동	1	중샛터			남 산	1	웃담
			2	샛담	삼봉리			2	아랫담
			3	뒷담				3	노평
			4	아랫담			평 지	1	세천거리
		문 화	1	문화				2	웃담
		중 동	1	신촌	명덕리	5		3	가운데담
			2	학교앞			원명덕	1	아랫담
			3	회관골목				2	강변담
			4	방앗간골목			반 송	1	원반송
			5	광담				2	쇠한바
		신 동	1	영남제재소골목			양 삼	1	양지
			2	중계소골목				2	삼거리
			3	가운데담				3	아랫삼거리
			4	극장주변			지 보	1	웃담
			5	중앙여관골목				2	아랫 담
			6	사거리	오동리	2	원오동	1	아랫담
			7	담배창고골목				2	가운데담
금곡리	2	원금곡	1	아랫담				3	웃담
			2	웃담			양 촌	1	양천세곡
		동 정	1	동정			성 곡	1	아랫담
			2	가항				2	웃담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무농리	2	원무농	1	웃담	10리	30 분리	분리 (마을)	78반	78자연마을 (관할구역)
			2	가운데담					
			3	아랫담					
		망 남	1	망남					
금덕리	3	위 동	1	아랫담					
			2	웃담					

마. 천천면의 유래

천천면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우평현(雨坪縣)의 관할구역에 속했으나, 통일신라 이후 757년(경덕왕 16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침에 따라 고택현으로 개칭되면서 천천면은 고택현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이때까지 현청의 소재지는 천천면의 관내인 남양리 앞 덕들(德野)에 있었다.

940년(고려 태조 23년) 고택현이 장천현으로 개칭되면서 현청 소재지도 덕들에서 장수읍 관내(선창리)로 옮겼다. 뒤에 현의 명칭이 장수현, 장수군으로 바뀌었으나, 천천면은 우금(于今)까지 그 관할구역에 있다.

근세 조선말엽 이후에는 부·군·현에 방을 두었지만, 편의상 구역을 획정하는 역할만 한 듯하다. 이 시기에 천천면의 지형은 동쪽으로 법화산 줄기와 서쪽으로 북노령 줄기가 다같이 북쪽으로 뻗어간 어간에 분지가 남북으로 길게 펼쳐졌는데 왕대들(長水邑) 좁은목 북쪽 일원을 신북방으로 부른 듯 하며, 1895년(고종 32년)에 전국에 23부 331군을 설치(設置)하는 지방관계 개정에 따라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신북방을 수북면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1917년 면제(面制)공포(公布)로 신북면을 천천면으로 개칭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천면은 노령산맥의 종산으로 불리는 장안산이 태백정간에서 갈려 나와, 수분재를 디딤돌로, 팔공산을 솟구친 다음 그 한줄기가 북으로 덕대산, 성수산 등 주봉을 이루면서 계룡산 부소산까지 뻗어 북노령을 이루었는데, 면의 서북쪽은 북노령과 밤고개(栗峙)(현재 방곡치로 잘못기재 됨)가 경계가 되어 진안군 백운면, 진안읍과 인접했으며 동쪽은 법화산맥이 경계가 되어 계남면과 장계면에 인접해 있고, 남쪽은 왕대들 좁은목을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장수읍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수분재에서 발원한 장수천이 천천천(天川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천천들의 북판을 흐르다가 성수산에서 발원한 와룡천이 덕들에서 합류하여

기름진 천천들의 역할을 하면서 북쪽으로 유유히 흘러서 진안으로 빠진다. 또한 천천면을 십자로 관통하는 26번국도(서(전주)~동(장계))와 719번지방도(남(장수)~북(금산))는 천천면의 동맥역할을 한다. 다음은 재의 이름이다.

① 노래골재(판둔~시므장) ② 절터골재(판둔~장척) ③ 대판고개(판둔~왕여봉) ④ 하리고개(장척~하신) ⑤ 중고개(장척~중상중리) ⑥ 매봉재(장척~중상상리) ⑦ 신광재(하신~신광) ⑧ 미재(하신~미재) ⑨ 겨례재(삼장~돈촌) ⑩ 서낭대이고개(장양~용신) ⑪ 섯발재(구신~평신) ⑫ 팽이바우재(평지~신기) ⑬ 벳발재(천천 반월~계남 중방) ⑭ 싸리재(천천 반월~계남) ⑮ 벳발재(천천 박곡~계남 난평) ⑯ 외기재(천천 비룡리중상~진안군) ⑰ 홍두깨재(천천 비룡리중상~진안군) ⑱ 노리개재(천천 고금~진안군) ⑲ 밤고개(栗峙)(천천 조선~진안읍) ⑳ 방어재(천천 여드름터~계남 침령) ㉑ 기계재(천천 신흥~진안군) ㉒ 괴개재(천천 구신~진안군) ㉓ 부서머리재(천천 부연~진안군) ㉔ 빈지재(천천 부연~진안군) ㉕ 질마재(중동~진안군)이다.

천천면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는 61 성에 112본이며, 밀양박씨가 98 호로 제일 많고, 김해김씨 91 호, 연안송씨 63 호, 청주한씨 50 호, 경주이씨 51 호 순으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천천면의 면적은 83.99km²이며, 표고는 해발 340m이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0, 분리(마을) 26, 자연마을 70, 관할구역 70반이다. 인구는 2,316 명(남 1,154 명, 여 1,162 명)이며 1,062가구가 살고 있다.(2009년) 다음은 천천면의 행정구역표다.

【천천면 행정구역표】

바. 계남면의 유래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장판리	1	장 척	1	뒷골				2	중반
			2	상담				3	하반
			3	중담				4	영등포반
			4	하담				5	뒷골
월곡리	2	반 월	1	아랫담				6	앞골
			2	웃담				7	취락반
		박 곡	1	주막담			춘 동	1	아랫담
			2	뒷담				2	중담
			3	아랫담				3	상담
			4	중담			장 양	1	아랫담
			5	웃담				2	웃담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비룡리	3	하 신	1	하리	용광리	2	장 양	3	양명동		
			2	신광			용 신	1	광신		
		중 상	1	중리			2	용암웃담			
			2	중리웃담			3	용암아랫담			
남양리	3	내 기	1	내기	오봉리	3	쌍 암	1	안산담		
			2	아랫담				2	쌍암웃담		
		이 방	2	중담			3	쌍암아랫담			
			3	웃담			오 옥	1	옥자		
삼고리	3	삼 장	1	아랫담	연평리	4		구 신	2	오공	
			2	웃담			3		월천		
		운 곡	3	창리			평 신	1	신흥		
			1	웃담				2	궁상		
봉덕리	2	중 동	2	아랫담			신 흥	1	신전웃담		
			3	정동				2	신전아랫담		
		검 덕	1	웃담			10 리	26 분리	분리 (마을)	70반	70자연마을 (관할구역)
			2	중기							
춘송리	4	조 신	1	아랫담							
			2	웃담						70자연마을 (관할구역)	
		3	신촌	70자연마을 (관할구역)							
송 탄	1	상반	70자연마을 (관할구역)								

계남면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해군(伯海郡(伯伊郡))의 관할 구역에 있었으며, 통일신라 이후 757년(경덕왕16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침에 따라 백해군을 벽계군(壁溪郡)으로 개칭했으며, 계남면은 벽계군의 관할구역에 속했다.

그 뒤에 벽계군이 벽계현(碧溪縣)(고려 태조 23년)으로 바뀌고, 벽계현이 장계현(고려 성종 14년)으로 개칭됐으며, 장계현이 장수현(근세조선 태종 14년)에 병합되고, 장수현이 장수군(고종 32년)으로 명칭이 바뀌기도 했지만 계남면은 현재까지 그 관할구역에 있다.

근세 조선말엽 이전에는 부·군·현내에 방을 두었으나 편의상 구역을 획정하는데 불과했다.

이 시기에 계남면은 임남방으로 부른 듯 하며, 근세조선 1895년(고종 32년) 전국에 23부 331군을 두는 지방 관제 개정에 따라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임남면이라 했고, 1917년 면제(面制) 공포(公布)로 계남면으로 개칭하면서 말단행정기구의 중요역할을 했다.

1917년 이전에는 장계천 이남 즉, 동평들과 남산마을은 임남면(계남면)에 속했는데, 이때에 위의 두 곳이 장계면에 편입됐다. 일설에 의하면 계남면에는 반상(班常)을 찾는 완고한 유교사상을 가진 어른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시대적 사고로는 양반은 저자(市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관념으로 인하여 동평일대(시장)를 장계면에 양보했다는 설도 전한다. 그로 말미암아 면세가 아주 약해졌다.

계남면의 지형은 닭이 알을 품은 것과 같은 금계포란(金鷄抱卵)의 형국을 하고 있다. 노령산맥의 종산이라고 부르는 장안산이 모계(母鷄)로 비유한다면 법화산과 백화산은 양쪽 날개로 비유된다. 그 속에 면민 1,000여 가구가 안겨 놓은 달걀처럼 포근하게 행복한 생을 누리고 있다.

장안산과 싸리재에서 발원(發源)한 유천은 계남들의 복판을 흐르면서 젖줄역할을 하고 있다. 19번국도는 계남면 남북(장수와 장계)으로 관통하면서 동맥역할을 한다.

계남면은 군내에서는 유일하게 타군·도와 접하지 않은 내륙면(內陸面)이다. 동쪽은 장안산 너머로 변암면과 장계면 일부에 인접해 있고, 남쪽은 싸리재와 경계를 이루어 장수읍과 인접했으며, 서쪽은 법화산이 경계가 되어 천천면과 인접했고, 북쪽은 동평들을 흐르는 실개천이 장계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계남면에 분포되어 있는 성씨는 60 성에 129본이며, 남원양씨가 120호로, 제일 많고, 김해 김씨 82호, 전주 최씨 47호, 밀양 박씨 40호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재 이름이다.

①오리고개(침령~사곡) ②성재(침령~천천 봉골) ③검바우재(사곡~고기) ④봉골재(고기~천천 봉골) ⑤솔무재(요전~난평) ⑥오애재(명동~난평) ⑦광대고개(명동~중방) ⑧봉황재(중방~천천 반월) ⑨절두고개(양신~천천 반월) ⑩재공재(음신~곡리) ⑪비암재(덕곡~음신) ⑫허기재(갈평~장계 남산) ⑬아리랑고개(갈평~구억) ⑭성황고개(원호덕~구억) ⑮새울고개(고정~조곡) ⑯조리고개(조곡~화산) ⑰피나무재(화산~장계 주촌) ⑱산막골재(화산~양지) ⑲풍주재(곡리~은신) ⑳가재재(평지~장수 노곡) ㉑새마기재

(평지 ~장수 덕산) ㉔고배기재(회평 ~장계 켄촌) ㉕무룡궁(무룡궁)재(괴목 ~변암 지지) ㉖싸리재(계남 ~장수) 이다.

계남면의 표고는 해발 380m 이고 면적은 50.28km²이며 인구는 2009년 1,005 가구에 2,369명(남 1,200명, 여 1,169명)이다.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8, 분리(마을) 26, 자연마을 48, 관할구역 48반이다.

다음은 계남면의 행정구역표다.

【계남면 행정구역표】

사. 계북면의 유래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침곡리	4	침 령	1	침령방어재	화음리	5	기 산	1	기산
		사 곡	1	웃뜸(복실)			고 정	1	고정
			2	가운데뜸(복실)				2	수열
			3	아랫뜸(복실)			한 거	1	아랫뜸
		고 기	1	웃뜸(옛터)				2	가운데뜸
			2	아랫뜸(옛터)				3	웃뜸
		요 전	1	요전			조 곡	1	조곡
화양리	3	난 평	1	웃뜸	가곡리	2	화 산	1	아랫뜸
			2	아랫뜸				2	토심이
			3	유촌			곡 리	1	곡리
		명 동	1	명동				2	죽전
		중 방	1	아랫뜸			평 지	1	평지
신전리	4		2	웃뜸	궁양리		양 지	1	아랫뜸
		양 신	1	아랫뜸				2	웃뜸
			2	웃뜸			궁 평	1	동편담
		음 신	1	아랫뜸				2	서편담
			2	웃뜸				3	신기
		농 원	1	농원	장안리	3	희 평	1	희평
		덕 곡	1	덕곡				2	밤실
호덕리	3		2	율평			원장안	1	동편담
		갈 평	1	갈평				2	서편담
		구 역	1	구역				3	지소
			2	동편			괴 목	1	괴목
		원호덕	1	아랫뜸	8리	26 분리	분리 (마을)	48 반	48 자연마을 (관할구역)
			2	웃뜸					

계북면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백해군(伯海郡)(백이군<白伊郡>)의 관할구역에 있었으며 통일신라 이후 757년(경덕왕 16년)에 군·현의 명칭을 고침에 따라 백해군(伯海郡)을 벽계군(壁谿郡)으로 개칭한 뒤에도 계북면은 벽계군의 관할구역에 속했던 것 같으나, 솔개재(蔚峙)(현재는 송치(松峙)(솔고개재)로 잘못 부르고 있음)이북, 군(郡) 지금의 원양지구(원촌, 양악)와 안성면(무주군) 일부지역(주고, 마암)에는 양촌소(양악소)를 양악마을에 설치해서 벽계군(碧溪郡)이 관할했던 것 같다.

지금도 양악마을에는 동헌(東軒)터, 악(嶽)터, 저자(市場)터였었다는 곳이 구전되어 온다.

또한, 일설에는 삼한(三韓) 78부족국의 고을로 추측되는 양촌골(陽村邑)이 양악마을에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

아무튼 양촌소(陽村所, 陽岳所)는 벽계군(碧溪郡)이 벽계현(碧溪縣)으로 바뀌고 다시 장계현으로 명칭이 바뀐 뒤에 장수현에 병합 될 때까지(근세조선 태종 13년) 지속됐던 것 같으며, 뒤에 소(所)가 없어지면서 원양지역은 계북면에 편입된 것 같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걸쳐 벽계군(碧溪郡), 벽계현(碧溪縣), 장계현(長溪縣), 장수현(長水縣), 장수군(長水郡)으로 고을의 명칭이 바뀌고 병합되기도 했지만 계북면은 위에 적은 군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

근세조선 말엽 이전에는 부군현내(府郡縣內)에 방을 두었으나 편의상 구역을 확정하는데 불과했다. 이 시기에 계북면(溪北面)은 임북방(林北坊)으로 부른 듯 하며, 근세조선 1895년(고종 32년) 전국에 23부 331군을 두는 지방관계개정에 따라 방을 면으로 고치면서 임북면이라 했고, 1917년 면제(面制) 공포(公布)로 계북면으로 개칭했다. 이때부터 면은 말단행정기구의 중요 역할을 했다.

계북면의 지형은 태백정간(소백산맥)이 남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가 남덕유산이 우뚝 솟았는데 이 산의 서쪽 언저리에 자리 잡은 오목한 분지로 되어 있다. 서의 남쪽으로는 덕유산의 만아들이라는 말글산(斗文峯), 악호봉(岳虎峯), 추락봉(墜落峯)등이 동에서 서쪽으로 큰 줄기를 펼쳤으며, 김재(羅峙)는 그 줄기이고, 그 줄기 너머로 장계면과 인접했다.

동쪽은 덕유산 너머로 경남 거창군 북상면과 인접했으며, 서쪽은 떠발양지 마을이 경계가 되어 천천면과 인접했고, 북쪽은 양악들 북관을 흐르는 실개천이 경계가 되어 무주군 안성면과 인접했다.

또한 덕유산에서 서북쪽으로 솔개(鳶 연)모양을 한 산줄기가 면의 중앙을 가로 질렀는데 그 재를 솔개재(鳶峙 송치(松峙)가 아님)라 하며 북쪽을 원양 지역, 남쪽을 어매(於梅)지역이라 한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세 가닥 물줄기 중 한 줄기는 경관이 빼어난 토옥동계곡(土玉洞溪谷)을 거쳐 양악 큰 들의 젓줄 노릇을 하는 양악천이며, 또 한 줄기는 구명보(천북)를 거쳐 갈벌들과 어전들의 젓줄역할을 하는 어전천이고 마지막 한 줄기는 농소천으로, 농소들을 적셔주고 매계(梅溪) 앞에서 어전천(於田川)과 합류하여 매계천(梅溪川)을 이룬 다음 매계들과 월현(月峴)들을 관개하고 금강 상류가 되어 천천으로 흐른다.

또한 계북면의 중심부를 남(장계) 북(무주)으로 관통하는 19 번국도는 면의 동맥역할을 한다. 다음은 재 이름이다.

① 장구명재 (매계~장현) ② 중재 (장현~월전) ③ 지마재(어전~백암)
④ 솔개재(鳶峙)(어전~원촌) 송치(松峙) (솔고개재가아님) ⑤ 김재(羅峙)(계북 압곡~장계 범덕골) 이다.

계북면에 분포돼 있는 성씨는 17 성에 24 본으로서 (완전 조사된 것이 아님), 밀양박씨 75 호로 제일 많고, 김해김씨 59 호, 금계한씨 36 호, 경주김씨 47 호 순으로 거주하고 있다. 면소재지의 표고는 해발 460m 이다.

면적은 55.97 km²이고 행정구역은 법정리수 7, 분리 (마을)수 15, 자연마을 수 42, 마을 관할구역 42반이다. 2009년 인구는 782가구에 1,715명 (남 853명, 여 862명)이다.

다음은 계북면의 행정구역표다.

【계북면 행정구역표】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월현리	1	월 현	1	장현	월촌리	4	백 암	1	웃담
			2	월전				2	아랫담, 신촌
			3	산촌				3	상백암
매계리	2	매 계	1	솔정자중담(월매계)			파 곡	1	상동
			2	장등				2	하동
		압 곡	1	압곡			외 림	1	웅기점
			2	신기				2	양지담
농소리	2	농 소	1	아랫담				3	상담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리명	분리수	분리명 (마을)	반수	자연마을 (관할구역)
농소리	2	농 소	2	가운데담	월촌리	4	원 촌	1	시장담
			3	신기				2	원촌담
		연 동	1	아랫담			울 곡	1	울곡
			2	웃담				1	상담
어전리	2	어 전	1	길담	양악리	2	양 악	2	중담
			2	아랫담				3	용소담
			3	회관담				4	구석담
			4	회관웃담			당 저	1	아랫담
			5	가운데담				2	웃담
			6	웃담				3	길담
		문 성	1	아랫담					
			2	갈벌					
			3	웃담					
임평리	2	내 림	1	양지	7리	15 분리	분리 (마을)	42 반	42 자연마을 관할구역
			2	음지					
			3	매자					

2. 마을의 유래

가. 장수읍

1) 개실(갈실, 갈대실, 노곡)마을

장수읍 노곡리를 ‘개실’이라 부르며, 다섯개의 땀(마을)을 통틀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개실의 제일 아랫마을을 ‘섬말(섬마을)’이라 부르며 마을 옆에 있는 들을 섬들, 건너편 번덕을 갈밭양지라고 부른다.

옛날 어느 명사가 이것을 지나고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니 날아가는 기러기가 갈대를 물고 있는 형국의 명당(비안함노(飛雁含蘆))이 있다고 말한 뒤부터 마을이름을 ‘개실(갈대실)’이라 부르게 되었다. 노곡에서 장안산으로 넘어가는 재를 노령이라 부르는데 이곳이 장안산 일대로서 노령산맥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2) 구락(九洛)마을

송천리 구락마을은 비둘기가 떨어진 곳이라 해서 구락(鳩落)으로 불렸다. 산서(오산)가 고향인 국현(菊軒) 임옥산(林玉山)이란 분이 근세 조선초엽 성종조에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있었는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어찌나 지극

한지 산서에 계시는 부모에게 매일 같이 외출할 때는 ‘어데어데 다녀오겠습니다’ 출필고(出必告)하고, 다녀와서는 ‘저차저차한 일을 보고, 잘 다녀왔습니다’ 반필면(反必面)하며, 저녁이면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새벽이면 밤새 별고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일을(혼정이신성(昏定而晨省)) 거르지 않고 행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친께서 환우가 위중해서 좋다는 약은 다 써도 효험이 없었다. 효심이 지극한 임옥산인지라 태산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주 차 들른 스님이 산비둘기를 구해 다려 먹이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임옥산이 하루는 정사(政事)를 끝내고 노친의 병환이 걱정이 되어 행차를 서두르며 전에 스님에게 들은 산비둘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구락리(당시는 마을이 없었음)앞을 지나가는데 난데없이 산비둘기 한 마리가 원님(임옥산)의 도포자락으로 날아들어 와서 그 비둘기를 다려 드리니 노친의 병이 나았다하며, 비둘기를 얻은 곳에 마을이 생겨서 ‘구락(鳩洛)’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왜정(倭政)이 들어서면서 전래의 아름다운 뜻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구락(九洛)으로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3) 안양(安養)마을

용계리 안양마을은 옛날에는 안양(岸楊)마을이라 불렀다. 풍수설에 의하면 버들꽃이 땅에 떨어진 형국의 명당(양화락지(楊花落地))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마을이름을 ‘버들언덕(岸楊)’이라고 불렀는데 역시 양화락지의 명당인데다 팔공산의 명기가 이 마을로 떨어졌는지, 동네가 생긴 이래 험악한 일이 생기지 않고, 동민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마을이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중도에 ‘안양(安養)’이라고 바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120여호에 700여 동민이 6·25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서도, 비참하게 살상 당한 일 없이 평온하게 지나갔다고 한다.



4) 선창(先昌)마을



선창마을은 옛날에는 ‘선창(船倉)’이라 불렀다. 마을 형국이 배를 선창가에 매어달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며, 한편으로는 늙은 어부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형국(어옹철망(漁翁撤網))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옛날 장천현시대에는 이 마을입구에 동헌(縣廳)이 있었으며, 방촌(庖村) 황희(黃喜)정승이 이곳에서 잉태 출생했다고 전하다.

5) 두산(斗山)(말뚝)마을



두산리는 마봉산(馬峯山)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마을이다. 마을 뒤 마봉산에는 말이 달리는 형국이라는 말봉, 투구봉, 장군바위가 있어, 이 마을을 ‘말산(馬山)’으로 불렀다는 것. 그 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馬)’과 ‘말(斗)’은 음이 같기 때문에 두산(斗山)으로 와전됐다는 설과 ‘斗’는 ‘泰’와 같은 크다는 뜻인데 마을 뒷산이 큰 산이기 때문에 두산(斗山)으로 불렀다는 설도 있다. 지금도 어

른들은 이 마을을 ‘말뚝(말뚝)’로 부르고 있다.

6) 식천(食川) (밥내)마을



식천리를 ‘밥내(食川)’ 또는 ‘밤내(栗川)’로 부른다. ‘밥내’와 ‘밤내’는 같은 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울천’으로도 부른 것 같다. 원래는 이곳에 솔이 걸려있는 형국(복부혈(伏斧穴))의 명당이 있다는 풍수지리설에서 유래된 듯 하다.

솔은 밥을 짓는 그릇이며 솔의 밑에는 물(내)이 있으므로 ‘밥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지금의 식천분교 뒤에 있는 산등선을 ‘솔택거리’라 부르고 동네 옆으로 뻗은 조그마한 줄기를 ‘주걱날’이라 한다. 그리고 서북쪽 언덕너머로 50여명이 놀 수 있는 반반한 바위를 ‘화전바위(花煎岩)’라 부

른다.

또한 남쪽으로 높이 솟은 봉을 ‘개동산’이라고 하며, 그 옆에 ‘방죽골’, ‘저드랭이’ 이가 있다. 개동산은 마을 뒤에 있는 복호혈(伏虎穴)과 마주 보이는데 있기 때문에 ‘개(犬)’ 형국의 동산이라는 뜻이라며, 방죽골은 ‘방적골(防賊谷)’, 저드랭이는 ‘제장래(諸將來)’의 와전이라 하는데 이는 팔공산의 바로 밑봉(下峯)이 장군대좌(將軍大座)의 형국이기 때문에 모든 장수가 와서 적을 막아주는 ‘여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7) 용계(龍溪)마을

용계마을은 고려말경에 왜장 이지발도가 줄개들을 이끌고 노략질을 하기위해 함양(咸陽)을 거쳐서, 남원땅을 침노한다는 장계가 조정에 당도하자 이성계(李成桂)장군은 왜군을 쳐부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으로 진군도중, 어느 날 남원으로 가는 길목인 용계마을에 이르렀다. 이성계는 왜장 이지발도가 함양에서 남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황산 좁은 목에 당도해야 이지발도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므로 서둘러서 이곳 용계까지 단숨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용계마을에 다 달았을 때 땅거미가 내리는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저녁밥을 그곳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장군일행이 저녁을 먹은 뒤 피로에 겹쳐 잠시 잠이 들었을 때 동네 닭들이 화를 치며 ‘꼬끼오 꼬’하고 울어댔다. 이장군은 깜짝 놀라 잠을 깨어, 작전이 실패한 것을 후회하며 허둥지둥 황산별 좁은 목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장병을 매복시키는 등 만반의 작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때서야 저 멀리 인근 동에서 어둠사이로 첫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이장군은 한숨을 돌리고 한 시각쯤 있으니까 먼동이 트이는 사이로 왜병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적이다!’라고 외치는 외마디소리와 함께 장군의 철궁에서 당겨놓은 화살의 첫 번째 살이 이지발도의 투구를 맞춰 입이 벌어지자 두 번째 살이 이지발도의 목구멍을 꿰었으며, 순식간에 적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산대첩을 거둔 이장군은 귀향길에 용계마을에 들러 용의 하신인 닭이 울어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고 기뻐하며 마을 이름을 ‘용계(龍鷄)’로 부르게

했는데 왜정 때 우리의 전통문화를 말살하기위해 ‘계(鷄)’를 ‘계(溪)’로 고쳐 부르게 했다고 한다.

8) 수분(水分)마을



장수읍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8Km 정도 19번 국도를 따라가면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으로 이너지는 산줄기가 있다. 이 줄기를 수분재라고 하며, 재 옆에 마을을 ‘수분마을’이라고 한다. 수분재의 문당에 남쪽을 바라본 외판집 한 채가 있다. 비가 오면 이집 몸채의 용마름을 경계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남쪽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으로 흐르고, 북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흐른다. 그리고 수분마을의 가운데를 흐르는 실개천이 수분들로 흐르다가 한 줄기는 금강으로, 한 줄기는 섬진강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마을을 흐르는 실개천이 금강과 섬진강의 최상 수원이 되는 것이다.

나. 산서면

1) 마하(馬下)마을



마하라는 원흥마을과 평촌마을을 통틀어 부르는 행정구역의 리(里)이다. 지금은 장수를 대성리에서 산서로 넘어가는 도로(재)를 ‘비행기(飛行機)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말하치재(馬下峙)’라고 불렀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팔공산 원수봉(元帥峯)에서 원흥앞 건지산 일대에 달리는 말이 도적을 쫓는 형국(약마부적(躍馬赴賊))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건지산을 말형(馬形), 원흥에서 오성으로 가는 고개를 덮개(말안장) 고개로 부르는데 한자로는 ‘덕현(德峴)’이라 해서 음으로만 표현했다. 원흥사 북쪽 고개를 ‘달랑고개’라 함은 말방울이 달랑거린다는 뜻이다. 이렇듯 약마부적의 명당이 이 일대에 있다는 풍수설로 인해서 지금의 비행기재를 ‘마하치’라 했으며, 원흥, 평촌마을은 마하치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마하리’란 동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2) 오성(五聖)마을



오성리는 등동, 방화, 개치, 성재, 강정 등 다섯개 마을을 합해서 오성리라고 부른다. 성재동(聖才洞)에는 근세조선 태종조에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천곡(泉谷) 안성(安省)선생에게 태종이 친히 글을 써서 선생을 칭찬한 어서를 모신 어서각(御書閣)이 있어 선재동(善才洞)이라 했다가 후에 성재동으로 불렸으며, 개치마을에는 승록대부, 판돈영부사, 여량군, 단종국구 증보국승록대부, 영돈영부사, 여량부원군, 시정민, 여산인, 죽헌, 송현수 (승록대부(崇祿大夫), 판돈영부사(判敦寧府事), 여량군(驪良君), 단종국구증포국(端宗國舅贈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영돈영부사(領敦寧府事), 여량부원군(驪良府元君, 시정민(諡貞愍), 여산인(礪山人), 죽헌(竹軒), 송현수(宋珏壽)를 모신 부조묘가 있는 곳이다. 방화마을에는 근세조선 세종조에 삼군도절제사(三軍都節制使)를 지낸 홍열정(洪烈亭), 최윤덕(崔潤德)장군을 모신 부조묘

가 있다. 이렇듯 한 마을에 홍살문이 세 개나 있어 하인을 막론하고 그 앞을 지나갈 때는 말을 내려야 하는 존엄한 곳은 다른데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강정마을은 주변에 물이 없어 '강정'이라 이름을 붙였으며 오성에서 장수를 대성리로 넘어가는 지금의 비행기재를 옛날에는 '강치(江峙)재'라 하다가 뒤에 '배치재(舟峙)'라 불렀다 한다. 이 배치재는 남원에서 장수를 거쳐 충청도로 가는 삼남(三南)대로였다고 하며 오성리는 다섯마을의 오자(五仔)라 성스러운 유적이 있어서 '오성리'로 불렀다한다.

3) 매암수(梅岩水; 마음수(馬飲水))마을



쌍계리 매암수 마을은 원래는 '마음'수라고 불렀다.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의 명당(갈마음수(渴馬飲水))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암수 윗마을을 마평이라하며, 산서에서 번암으로 넘어가는 재를 '말치재(馬峙)'라 부른다. 또한 매암수의 주변에 '사실정', '구슬골', '채들' 등 말과 관계되는 이름들이 지명으로 붙어있다. 함양에서 번암을 거쳐 말치재를 넘어서 매암수 앞을 지나 동고지로 가는 길은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삼남대로였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마을이 번창할 때는 동네 앞에 주막이 72 곳이나 있었다고 하며 수십마리의 말이 쉬면서 물과 여물을 먹었다. '마음수(馬飲水)'라는 이름이 이런 연유(緣由)로 붙여졌는지도 모른다고 촌로(村老) 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4) 능실(凌谷)마을

동화리 능곡마을은 팔공산이 서쪽으로 힘차게 뻗어 우뚝 솟은 영대산(靈臺山)아래 아늑히 자리 잡은 조그마한 마을이다. 예로부터 늙은 중이 예불을 올리는 형국의 명당(노승예불

(老僧禮佛))이 마을근처에 있다고 해서 동네 이름도 ‘바리대실(綾谷)’이라 지었고, 재들(齋野), 구승평(九僧坪), 명금절(鳴金節) 등의 이름이 흡사 노승 예불을 실감케 한다.

5) 용전(龍田)마을



소재지에서 백운리 가는 지방도를 따라 동북쪽으로 500m쯤 가면 학산리 용전마을에 이르는데, 이 마을이 이룩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마을 앞에 연못이 있었는데 밤마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놀다가곤 했으며 부근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울창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연못의 물이 솟구치며 용트림을 하더니 청룡 한쌍이 승천하였는데, 그 뒤부터 밤마다 내려오던 선녀는 오지 않고 연못가에 섰던 노송 나무에 간간히 학이 날아와서 울다가 가곤 했다.

그럴 즈음 홍악백발의 도사 한 분이 이곳을 지나치다가 연못가 노송에서 학이 ‘끼르르 끼르르’ 우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지껄이듯 ‘이곳에 동네를 이룩하면 성현군자와 백만장자가 나올 텐데’ 하고는 사라졌다. 옆에서 일하던 촌로가 마을에 가서 도사의 말을 퍼뜨리자, 인근동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취락을 형성했는데 날이 갈수록 마을이 훌륭한 인물과 부자가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용이 올라간 곳에 취락을 이룩했다고 해서 ‘용전’이란 마을 이름을 붙였다고 전한다.

6) 괴로울(槐亭) 마을

면소재지에서 장수로 가는 719번 도로를 따라 500여 미터를 가다보면 도로 옆에 울창한 숲이 있고 그 안에 아담한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괴로울’ 또는 ‘괴물’이라하며, 행정구역



으로는 동화리 괴정마을이다.

지금부터 약 1천5백여년전 이 마을 앞에는(지금 정자나무가 무성한 곳) 주인을 알 수 없는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들고 괴질이 만연하여 인심이 흉흉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무지한 백성들은 불길한 모든 것이 마을 앞에 묵어있는 무덤 탓으로 돌리고, 모두 나서서 무덤을 파헤쳐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어이 할꼬, 이 일을! 풍년이 들고 질병이 없어지기를 갈구하고 무덤을 파헤쳤건만, 농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부터 사방에서 귀신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대낮에도 귀신이 나타나 동민들은 문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중에 하루는 시주하러 왔던 어떤 스님 한 분이 이르기를 ‘마을 앞을 지나다보니 귀신의 요기가 사방에 휩싸여있기에 들렸소이다. 앞으로 귀신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지정하는 곳에 정자나무를 여러 주 심으십시오.’ 하고는 파헤쳤던 묵괴자리를 가리키지 않은가? 동민들은 너도 나도 나서서 그 자리에 정자나무를 심고 귀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 뒤부터 귀신은 자취를 감추고 괴질도 없어졌으며,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는가 하면 그 때에 심은 정자나무가 하늘을 치솟았으나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벼락을 맞아 등치는 죽고 뿌리에서 돌아난 새순이 자라서 다시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또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마을 앞에 있는 숲이 무성하면 마을이 번창하기 때문에 동민들은 숲을 생명처럼 보호한다고 촌로는 전하다.

다. 변암면

1) 원촌(院村)마을



원(院)은 근세 조선시대의 교통의 요로에 세운 국립여관(國立旅館)이다. 전국의 각 도로를 대중소로 나누어 각 요로에 세운 원과 인가가 드물어 행인의 통행이 불편한 곳에 세운 원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순천에서 구례, 곡성을 통하여 남원, 장수, 무주를 거쳐 충북 영동으로 가는 현 19번 국도는 옛날에도 2등급의 국도였다. 우리 장수의 여러 마을 중 원촌이란 이름을 가진 곳은 계북면 원촌마을과 변암면 원촌마을의 두 곳 뿐이다. 모두 국도변에 있는 마을이며 우리나라 리수(哩數)로 백리를 상거(相距)한 거리에 있다. 지금도 원촌마을의 입구에는 옛날 남원부사가 묵어갔다는 순시비가 섰으며, 마을 뒤의 논에는 옛날의 원사(院舍)가 있었다는 표식으로 기(器), 토기편(土器片)이 이따금 출토되기도 한다. 이 원의 주변에 하나 둘의 인가를 이루어 취락을 형성한 것이 오늘의 원촌마을이다.

2) 복성(福星)마을

복성마을은 변암면 논곡리와 남원시 아영면 성리(城理)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산골마을로 행정구역은 변암면 논곡리에 속한다. 이 마을 뒤로는 소백산맥(태백정간)의 능선이 크고 작은 봉우리를 이루며 유유히 남북으로 뻗어가고 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어서 농로가 제대로 뚫리지 못하고 있다. 복성마을은 아래와 같은 연유로 취락이 이룩되었다고 한다. 옛날에 변도탄이란 기인이



있었다. 변도탄은 나라의 군량미(軍糧米)를 관리하는 양관(糧官)으로 있었다. 그가 어느 날 천기(天機)를 보고, 삼년 내에 국가에 큰 전란이 있을 것을 알았다. 앞으로 닥쳐 올 전란에 대비, 국방을 튼튼히 할 것을 상소(上疏)했으나 평화 시에 혹세무민(惑世誣民)한다는 이유로 삭탈관직(削奪官職)을 당했다. 변도사(卞道士)는 하는 수 없이 피난할 곳을 물색하던 중 지리산 등지를 의중에 두고 천기를 보아하니 복두칠성중의 복성(複星)이 갑자기 밝은 빛을 남쪽으로 비추므로 별빛을 따라 지리산 쪽으로 가다가 별빛이 멎은 곳에서 쉬었다. 이곳이 오늘날 복성부락에서 약간 떨어진 웃복성이라는 곳이다. 변도사는 이곳에 움막을 짓고 피난 때 가지고 왔던 많은 양곡을 가루로 만들어서 벽과 천정을 발랐다. 이삼년 뒤에 마침내 나라에 큰 전란이 일어났다. 외적의 침입으로 임금께서는 몽진길에 오르고 왕족과 중신들은 이리저리 흩어

졌다. 어느 날 구름처럼 몰려드는 피난민 틈에 허기가 지고 노독으로 기진맥진한 왕족일행을 발견하고 벽을 떼어서 죽을 쑤어 먹게 하여 목숨을 구하였다. 또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군을 위하여 움막에 발랐던 쌀가루를 군량미로 사용하였다.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전란은 끝이 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 복성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변도탄이 피난을 때 군량미를 가지고 온 죄는 크지만 국가위급 시 국가를 구하는 군량미로 긴요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임금께서 죄를 사하고 오히려 상을 내렸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남원시 송동면의 변씨들이 변도탄의 후예라는 설도 있다.

3) 노단(魯壇)마을



남노령의 주봉을 이룬 대성산(大聖山) 동쪽 언저리에 포근하게 자리 잡은 삼백여 대촌(大村)의 명당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마을이 변암면 소재지인 노단마을이다. 이 마을은 근세조선 초 중엽에 형성된 흥성장씨 취락이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던 도사가 명명했다 하는데, 이 마을의 주룡(主龍)

을 이루는 산이 성현의 명기를 띠었다 해서 '대성산'이라 이름 하였다 하며, 이 마을의 형국이 노나라(魯國)에서 태어난 대성인 공자님이 집터(壇)와 같다고 하여 '노단'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렇듯 명당이라 그런지 시골답지 않게 날로 번성해 가고 있다.

라. 장계면



1) 주촌(朱村)마을

장계에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 쪽으로 4km쯤 가다 다시 오동, 대곡의 농로를 따라 3.5km쯤 거슬러 올라가면 깊숙한 산골에 40호 정도의 농가가 있는데 이 마을 만고의 충열이며,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는 의암 주논개의 태생지인 주촌마을이다. 400여년

전 범바위골(주촌의 건너편에 있었다)에 사는 주달문(朱達文)이라는 학자가 이곳에 새터를 잡아 서당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장수삼절(長水三節)이 주벽(主壁)이요, 충렬의 여신(女神)으로 추앙받는 의암(義巖) 주논개(朱論介)가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6세까지 성장하면서 부친 주달문에게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주씨의 마을이라는 뜻에서 주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의암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마을 입구에는 주논개를 낚기 위해 공을 들였다는 성황당(聖堂)이 지금도 마을의 「지킴이」로 남아있다. 매년 정초가 되면 「지킴이」인 조탑과 노송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산신제를 지낸다. 지금은 저수지(오동제)로 변했지만 논개의 생가터에는 부친에게 조석으로 정화수를 떠다 드려 해수병을 낫게 했다는 약수천(藥水泉)이 남아있었다.

마을 앞 동쪽으로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민재(소백산맥)가 있다. 이 재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큰 재이며, 논개가 어릴 때 숙부 주달무(朱達武)에 의해 풍천마을에 사는 백치불구인 김풍현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칠혹 같은 그믐밤에 홀홀단신 이 재를 넘어 외가에 피신했다는 애절한 사연이 담겨있다. 생가지에는 장수 초대 교육감을 지낸 김상근(金相根)씨가 앞장서서 세웠다는 의랑(義娘) 주논개생장향수명불망비각(生長鄉堅銘不忘碑閣)이 우뚝 서있다. 이렇듯 이 마을은 의암 주논개에 관한 유적과 전설이 서려 있는데, 마을 아래에 대곡호(大谷湖)를 막게 되어, 마을이 온통 제방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훨씬 위쪽에 새터를 잡아서 논개의 생가복원을 하고 유적도 같이 옮겼다.

2) 금곡(金谷)마을(쇠키미, 쇠가마)

금곡마을과 망남(望南)마을 중간지점에 동촌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300여년전 동촌마을이 형성된 것을 정재호(鄭在浩)(나주정씨)라는 분이 나주에서 살다 14세의 어린나이에 양친을 잃고 부지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문전걸식 하며 떠돌아다니다 이곳에 돌담집을 짓고 정착하여 살다보니 박, 권, 이,



유, 김씨 등이 모여들어 10여호의 취락이 형성되어 마을이름을 동촌이라 부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정재호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마을 넘어 칠녕쿨이 우거진 곳(현 금곡마을)에 새터를 잡아 성주하면 당대에 백석(白石)은 할 짓’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려 하자 까닭을 물으니, 그 터는 가마혈(釜穴) 때문에 밥이 그득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산줄기, 고개, 돌, 골짜기 등에도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뒤에 있는 산고개를 ‘곱돌고개’, 고개 아래 있는 큰 바위를 ‘우렁바위’, 맞은편 동산을 ‘월계(月桂)’, 뒤돌골짜기를 ‘노다지골’, 재넘어 골짜기를 ‘차돌배기’라고 부르면 뒷날 ‘부자방망이’가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내말을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동촌 사람들은 노인의 말대로 새터를 잡고 마을이름을 ‘쇠기미(쇠가마, 금곡)’라 불렀다. 이 마을에는 나주정씨가 세거하면서 정금남(鄭錦南)의 사당(祠堂)을 모시고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의 금곡마을에는 주변에 질이 좋은 대리석이 깔려있어 이 대리석을 개발하면서 그 옛날 노인의 선견지명을 촌로들은 목청을 돋구어가며 들려준다.

3) 무농(務農)마을(모릉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 셋땀(봉서외동옆-서문성인씨논)에 새터를 잡은 사람이 안음(安陰) 서문씨(西門氏)였고, 조금 뒤에 안터(정씨 조묘 밑)에 새터를 잡은 사람이 봉산이씨(鳳山李氏)였다고 한다. 이들이 새터를 잡았을 때에는 풍수지리상의 허점을 몰랐으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불현듯 명당자리라고해서 새터를 잡은 것이 지금의 ‘모릉이(務農)’이다. 두 성씨가 논과 밭을 일구며 정답게 사는 사이에 충주박씨와 경주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점차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모릉이’란 말은 ‘산모서리’란 뜻이다.

4) 장계(長溪)마을



옛날 한씨가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한들(韓坪)’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으나 큰들(한들)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대평리’로 불렸다. 그 후 상대(上大: 지금의 동 남동), 하대(下大: 지금의 신·중·서·북동)로 분리하였는데, 다시 하대를 중하대(中下大: 중동), 전하대(前下大: 서동), 후하대(後下大: 북동)의 4개리로 분할하였다. 이렇듯 4개리로 분리되어 오다가 다시 1구(서동), 2구(중동, 신동), 3구(북동, 중셋터), 4구(동동, 남동)로 재분할 되었다. 그 후 1953년경 다시 동·서·남·북·중·신동 등 6개동으로 구역이 개편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계는 동부산악권의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과 진주 간 고속도로가 관통되고 군산과 포항 사이가 4차선으로 뚫리면 큰 도시로 발전할 전망이 크다.

5) 호덕(虎德)마을(범덕골)



호덕마을은 200년전만 해도 오솔길마저 희미하게 나 있는 첩첩산중이었다. 이곳에 마을이 생긴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날 한 선비가 이곳을 지나다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저만치 불빛이 있기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보니까 호랑이의 눈에서 발하는 빛이었다. 순간 선비는 놀랐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자세히 바라보니 선비를 해치려는 호랑이가 아니라 어디론가 길을 인도하려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지 않은가? 이상하게 생각한 선비는 한 발자국 다가섰다. 그러자 호랑이는 눈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앞서가기 시작했다. 선비는 뒤를 따라 덩불을 헤치고, 내를 건너고, 언덕을 넘어갔다. 얼마동안을 따르다보니 아담한 기와집 문 앞에 이르렀다. 순간 호랑이는 간곳이 없고 한 노인이 대문을 열어 반갑게 맞이했다. 선비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로에 겹쳐 곤한 잠에 빠졌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노인도, 기와집도 간곳이 없고 누워있는 곳은 겹겹이 우거진 풀섬 위였다. 선비는 벌떡 일어나 지난밤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이 겹겹이 쌓여 있으나 기분은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훈훈함 바로 그것이었다. 산세를 살펴보니 뒤로는 산등성이가 포근히 웅위하고 좌우의 산봉이 이쪽으로 안아주고 있다.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물 건너 저만치에는 노적봉이 솟아있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새터를 잡고 전답을 일구면서 살게 되었다. 선비가 사는 곳을 호랑이가 일러주었기에 ‘호덕’이라 이름하고 뒷산 높은 봉을 ‘악호봉(岳虎峯)’이라 하였으며 산 아래 양지바른 언덕을 ‘불당(佛堂)재’라 불렀다. 뒤에 불당재에는 불당을 지었는데 금덕사(錦德寺)이며 지금의 성관사(星觀寺)이다.

6) 침동(砧洞)마을



침동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300여년전 임실군 성수면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고달프게 살아가던 한 과수(동래 정씨(東來鄭氏), 입장수증시조(入

長水中始祖), 선교랑, 정유지(鄭維祉)의 부인, 밀양손씨(孫氏))가 노쇠해지자 친정이 있는 위동마을을 근처로 이사해서 살았다. 친정부모와 동기간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별세하여 슬픔 속에 장례준비를 분주히 하느라 행랑방 앞을 무심결에 지나다 들으니 지관이 오빠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의 장지가 명당자리라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욕심이 생겼다. 손씨부인은 그 길로 빈 물동이를 들고 가서 천광구덩이에 물을 길어다 부었다. 이튿날 아침 운구 전에 장사차비를 위해 장지로 떠났던 친족중의 한 사람이 급히 돌아와서 상주에게 하는 말이 명당이라던 장지의 천광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이다. 순식간에 상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상주들은 지관을 불러 호통을 치고는 다른 장지를 급히 물색토록 했다. 새 장지에 무사히 장례를 치루고 돌아온 친정오빠에게 손씨부인은 그날 밤 가련한 얼굴을 지으며 애원했다. ‘오라버니, 자식들도 아직 미거하고, 산도 없는 터에 몸은 늙어 죽어서 들어갈 곳이나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했지만 그럴 처지가 못 되었는데 오늘 물구덩이라 버린 곳을 저의 신위지지로 돌려주실 수는 없을런지요?’ 하고 간청하자, 오빠는 순순히 응락했다. 그 후 손씨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은 이곳에 안장했다고 하며 ‘숙부인밀양손씨지묘(淑婦人密陽孫氏之墓)’라고 새겨진 비가 서 있는데 이곳이 대호명당(大虎名堂)이라는 것이다. 손씨부인의 자손들은 묘소에서 가까운 언덕아래에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며, 정씨취락을 형성하였는데 이 마을이 침동(砦洞)마을이다. 침동에는 대호명당의 발음(發聲)으로 정씨들이 세거하면서 별족(閥族)했으나 지금은 몇 집이 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마. 천천면

1) 운곡(雲谷)(그름실, 굽실)마을

옛날 신선이 운곡마을을 지나다 물 맑고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바위에 갓을 벗어놓고 쉬고 있는데 건너 마을에 살고 있는 촌로 한 분이 너무나 인정 없는 짓을 하여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이때 신선이 하는 말이 ‘이곳에 마을을 이루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한 뒤 그곳을 떠나 어디론지 사라졌다고 한다. 그 뒤 앞을 다투어 지금의 갓바위들에 이사하여 마을을 형성하였으나 부귀영화는커녕 도둑과 화



재로 마을에 재앙이 잇따르자 그제야 신선의 노여움을 받았음을 깨달은 마을민은 지금의 터에 하나 둘 이사하여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구름골’, ‘구름실’이라 하여 운곡마을이 형성되었다. 또한 그때 신선이 갯을 벗어 놓고 쉬고 간 바위가 지금도 있으며 이 바위를 ‘갯바위’라 이름 지어 부르고 있다. 운곡마을에 주축을 이룬 성씨는 김씨이다.

2) 송탄(松灘)마을



천천면 춘송리 송탄마을은 면소재지 마을이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던 기묘사화(己卯士禍)때 조정의 많은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충신열사들이 귀향가고 혹은 사사(賜死)되니 뜻있는 지사(志士)들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서 자연을 벗 삼아 산으로 은둔했다. 송탄 장응두(張應斗)선생도 기묘사화에 진저리를 느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지금의 송탄에 와서 터를 잡고 은둔생활을 했다.

송탄마을의 옆을 흐르는 천천천(天川川)은 냇물이 많고 맑으며 주변의 경치가 좋아 송탄 장응두 선생은 낮이면 냇가에 나가 고기잡고 밤이면 글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후세 사람들이 동네 이름을 그분의 호를 따서 송탄이라 불렀으며 송탄어적(松灘漁笛)이라고 해서 장수팔경의 하나이다.

3) 삼고(三顧)마을



천천면 삼고리 마을은 삼장마을이라고도 하며 천천 소재지에서 장수로 가는 2km지점 도로 옆 성수산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장수로 가는 길초로 덕대산계곡(德大山溪谷)에 비룡, 남양마을이 있는데 이는 삼국지(三國志)에 나오는 중국고사와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다. 옛날 어느 전략가가 이곳을 지나다 보니 삼국지에서 나오는 지형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동명(洞名)이라 전해지고 있다.

4) 장판(壯坂)마을

천천면 장판리 마을은 송탄에서 장수로 가는 길가 매봉산 계곡에 위치하

고 있으며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판교(壯坂橋) 싸움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 마을이다. 유비(劉備)가 조조(曹操)의 대군에 쫓겨 장판교 근처에 왔을 때 조자룡(趙子龍)은 난군(亂軍)중에서 유비의 어린아들 아두를 구해 가슴에 안고 일당천(一當千)으로 길을 찾아 본진에 돌아오니 어린 아두는 색색 자고 있었다는 말은 너무 유명하다. 이곳에는 절의(節義)를 세우고 순사(殉死)한 장수삼절의 하나인 타루비(墮淚碑)가 있다. 원님 조종면(趙宗冕)이 말을 타고 이곳 비탈을 지날 때 갑자기 썰매 푸드득 하고 날아오르니, 그 소리에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원님이 소(沼)에 빠져 죽었다. 말을 몰던 통인백씨(通引白氏)는 손가락을 깨물어 나온 피로 말과 썰매의 형상을 그리고 타루(墮淚)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원님을 따라 소(沼)에 빠져 죽으니 의로움이 하늘에 닿았다. 140여년이 지난 뒤에 현감 최수형(崔壽亨)이 백씨의 절의를 이도(吏道)의 귀감으로 삼아 장척 마을 입구 비탈에 타루비(墮淚碑)를 세웠다.



5) 박실(朴谷)마을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은 성종조(成宗朝)에 등과(登科)하여 그 후 강원감사(江原監司)를 지내다가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지금의 계남 땅으로 낙향한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 선생이 여생을 훈육에 힘쓰다 세상을 마치니 지금의 박실 옆 산록에 묘를 쓰고 그 옆에 귀후재(歸厚齋)를 짓고 제사를 지냈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박감사(朴監司)의 묘가 있는 골짜기라고 해서 '박실(朴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다.



6) 신기(薪基)마을

옛날부터 이 곳 천천면 신기마을은 유람하는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이다. 전쟁 때 피난터로도 유명한 이곳은 6·25동란 때도 가장 피해가 없는 곳이며 하동 8경, 하동 8루의 중심지역이면서도 동향, 상전, 진안, 천천으로 통한 산골 길손이 쉬어가는 봄볕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약 80여년전 만물을 통달한다는 고창 출신 송선생이란 분이 축지법을 이용,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곳(신기)을 보고는 모든 여건이 서울 못지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후에 반드시 이곳이 서울이 된다는 생각에 많은 제자를 이곳에 정착시키게 되었으며 새로 터를 잡아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여 새터라고 지었다.

그리하여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 서울등지에서 유명한 고관들이 이곳 신기마을에서 피난하였으며 인촌 김성수씨와 함께 독립 운동가이며 교육자이신 지산 촌곡의 외삼촌 김영주 선생도 이곳 신기에서 피난을 했다고 한다.

7) 고금(鼓琴)마을



옛날에 아름다운 선녀가 밤이 되면 현재의 천천면 고금마을 뒷산 옥녀봉에 수십명이 내려와 목욕을 하고 칠보단장이 끝나면 이 마을 뒷골에 모여 들어 베를 짜다하여 ‘방직골’이라 불렀다한다. 베를 짜다 쉬는 시간이면 간바위에 올라 앉아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한다. 그 후 옥녀봉을 뒤로 간바위와 방직골을 좌우로 하여 부락이 형성되었는데 옛날

선녀가 거문고를 탔다하여 ‘두드릴 고(鼓)자’와 ‘거문고 금(琴)’을 따서 ‘고금(鼓琴)’이라 이름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주요 성씨는 청주한씨가 대부분이다. 이 마을의 새마을 사업은 본 도에서도 우수마을로 표창도 받은 앞서가는 마을이다.



바. 계남면

1) 기산(箕山, 杞山)마을

화음리 기산마을을 키 같이 생긴 산으로 둘러싸여 마을이 형성됐다고 해서 ‘기산(箕山)’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중년에 붙여진 이름이고, 옛날에는 기산(杞山)으로 불렀다고 한다.

강원도의 감사(監司)를 지낸 파은(波隱) 박수기(朴秀基)공은 연산군(燕山君)의 폭정(暴政)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선정하기를 여러 번 간했으나 듣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지금의 기산(杞山)땅에 낙향하여 지내다 보니 산세가 좋고 땅이 비옥하여 이곳에 터를 잡고 기산(杞山)이라 불렀다. 중국(中國)의 고사에 요(堯)임금은 기산령수(杞山靈水)에서 주경야독(晝耕夜讀) 자연을 벗삼고 사는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에게 가서 귀를 씻었고, 허유는 귀 씻은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朴)공은 자기의 처지가 그와 같다는 생각, 그곳을 ‘기산(杞山)’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2) 수열(樹烈)마을



고정리 수열마을의 유래는 이 마을에 사는 해주오씨(海州吳氏) 부인이 만고의 열(烈)을 심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웃마을에서 이곳으로 시집온 오씨부인(海州吳氏)는 양사순(梁思舜)과 단란하게 살고 있던 중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게 되었다. 이때 왜적들은 남원성을 침공한 후 이곳에 당도, 오씨부인을 능욕하고 유방을 만지며 온갖 희롱을 했다. 이에 오씨부인은 악마와 같은 더러운 왜적들이 만진 유방을 칼로 도려내고 자진했다고 한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오부인이 만고의 열(烈)을 심었다(樹)하여 마을 이름을 ‘수열(樹烈)’이라 하고 마을 앞들을 ‘수열평’이라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요전(堯田)마을



계남면 침곡리 요전마을은 아주 순하고 평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의 논과 밭이 비옥한데다가 평온하고 평화스럽기만 하게 느껴지는 마을이다. 우리가 흔히 평화와 이상의

세상을 요순(堯舜)시대라고 부르는데 강암 박종빈(朴宗彬)이 이곳에 터를 잡아 후손에게 전할 때 주위의 산세나 지형을 살펴보니 이상향(理想鄕)으로서 손색이 없고 가히 요의 땅이 될만하다고 해져 ‘요전’이라 했다한다.

화자 : 계남면 침곡리 박수섭

4) 중방(中方)마을



계남면 화양리 중방마을은 원래는 ‘골말골’이라 해서 지금의 중방마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밀양박씨(密陽朴氏)들이 제일 먼저 터를 잡아 살았다.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다. 남들이 말하기를 박씨의 선산의 묘를 갈마음수혈(渴馬飲水穴)에 썼기 때문이란다. 어쨌든 갑자기 거부(巨富)가 되니 교만해지고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 거지에게 동냥 한 훈주는 일 없고, 중이 시

주하러 오면 동냥은 고사하고 중을 잡아 머리에 대테를 매우는 일이 일쑤였다. 이런 소문을 들은 어느 도승(道僧)이 악한 짓만 하는 박(朴)씨를 망하게 하려고 박씨집을 찾았다. 박씨는 그 중이라고 해서 반갑게 대 할리가 없었다. 그러나 중은 정중하게 ‘소승이 이곳을 지내다 보니 저 건너 묘가 있는데, 그 묘가 갈마음수혈(渴馬飲水穴)의 대명산(大名山)인지라 뉘 집 묘소인가 물었더니朴씨댁 묘소(墓所)라고 해서 찾아 왔습니다. 갈마음수혈은 묘 쓴지가 오래되면 그 앞 방죽에다 낚시를 많이 넣어서 메워야 다시 발복(發福)을 하는 것이기에 일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는 사라졌다.

박씨는 도사가 시킨 대로 하다보니 유기구하는데 살림이 자꾸 줄어들어 그길로 비전박토 하나 없이 망했고 동네도 괴변이 생겨 이곳을 버리고 그 옆에다 새터를 잡고 살았다 한다.



5) 난평(卵坪)마을

화양리 난평마을은 계남면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경주왕릉과 같은 알봉(卵峯) 바로 앞 주면에 위치하고 있다. 지관(地官)의 말에 따르면 난평마을은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난평’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지금 알봉이 있

는 곳이 옛날에는 평전이었는데 근처의 어느 여자가 새벽밥을 지으러 일어나보니 그곳에 산이 솟아오르고 있어서 엉겁결에 ‘산이 크다’고 고함을 지르니 그 뒤부터 모양이 알같이 생긴 채 더 크지 않고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 속설에 의하면 그 여자가 고함을 지르지 않았던들 알봉은 더 커지고 이 고을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을 것 이라는 말도 있다. 촌로(村老)들은 마을 아래에 계남중학교를 설립하여 수천명의 병아리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 일할 제목으로 자라나고 있으니 이 자리가 금계포란혈(金鷄抱卵穴)이 분명하다고 전한다.

6) 진재 마을

화양리 진재마을은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길이 없고 다만 그 옆에 계남중학교가 몇년전에 들어섰다. 옛날 진재마을에는 문화유씨(文化柳氏)와 남원양씨(南原梁氏)가 살았다. 두 씨족(氏族)들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항상 걱정이 있었다. 마을 옆을 흐르는 냇물이 평시에는 아무 일 없으나 비가 많이 오면 마을로 범람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동민(洞民)들은 잠을 못 자고 수방(水防)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이에 진저리를 낸 동민들은 내의 방향을 돌리기로 결의하고 많은 재산과 노력을 들여 내를 다른 곳으로 흐르게 했다. 내를 돌린 뒤부터는 그렇게도 잘 살던 양씨족(兩氏族)들이 망하고 동네마저 폐촌이 되었다. 냇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동네 운이 나가버렸기 때문이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옛부터 냇물은 꼭 제자리를 찾는다는 말이 있는데 몇년전 옛 진재마을 자리에 중학교를 지으면서 냇물을 옛날 흐르던 위치로 돌렸다. 이것을 본 주변의 노인들은 풍수설(風水說)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며 이제 중학교(中學校)는 날로 번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7) 새울(鳥谷)마을

소백산맥(小白山脈)에서 줄기하나가 힘차게 뻗어 내려와 白華山 봉우리가 뿔뿔히 그 여세가 南西쪽으로 조용히 휘감아 내려온 따뜻한 양지쪽에 화음리 새울(鳥谷)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안산에 ‘황새봉’이란 봉우리가 있고 마을 아래에는 ‘새알’이란 조그마한 알봉이 있다.



옛날 전라감사 이서구씨가 이곳 계남땅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백화산에서 뺏어내린 산새가 마치 황새가 먹이를 찾아 날으는 형국'이라 하여 이 봉을 '황새봉'이라 하였고 마을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봉우리는 '새알봉'이라 명명하여 지금도 불려지고 있다. 그 뒤로 이 마을을 '새울(鳥谷)'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속설에 의하면 알봉에서 알이 깨어나면 훌륭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란 전설이 있다.

8) 덕곡(德谷)마을



長安山이 北西쪽으로 뺏어 옥녀가 베를 짜는 형국(玉女織錦)을 한 작살봉 산록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마을이 덕곡(德谷)이다. 마을 주변의 형국을 살펴보면 山과 이로정(二樂亭)으로 뺏어

간 날이 베틀(織機)의 다리(足形)이며, 뒷산의 수등봉(樹燈峰)이 불을 밝혀주는 형국이요, 그 옆에 낙사봉(落糸峯)이 북(베를 짤 때 실꾸리를 담는 기구)의 형국이며, 또한 물투가리(水器)의 형국이라 하여 옥녀직금(玉女織錦)의 형국과 일치된다는 것이다. 옥녀(玉女)가 고은 비단을 짜듯이 이 마을은 인심 좋고 덕이 있는 마을이라 하며 '덕곡(德谷)'이라 부른다.

9) 율평(栗坪)마을(밤정이)



현재의 밤정이에서 남쪽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는 100여호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이 윗밤정이었다. 밤정들을 대는 붓도랑물이 원래는 마을 아래쪽을 감돌아서 흐르고 있었는데 마을주민들은 붓도랑물을 마을 위쪽

산 밑으로 옮겼다. 그 후부터 마을이 퇴락하기 시작하여 폐촌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밤정이 자리에 한집 두집 취락을 형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답이 된 윗밤정자리에서는 방돌, 기와 등이 지금도 간혹 나오고 있다.

사. 계북면

1) 삶다리(狸脚 新基)마을

매계리(梅溪狸) 신기(新基) 압곡(鴨谷)마을을 ‘삶다리’라 부른다. 한자(漢字)로는 ‘狸脚(이각)’이라 쓰는데 옛날 이곳을 지나던 道士가 주변의 산세를 보고 마을이름을 ‘삶다리’로 붙였다고 한다. ‘삶다리’란 살쥔이(狸)의 다리(脚)란 뜻으로 마을 앞에 있는 동산이 살쥔이의 다리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의 서북쪽에 위치한 산은 장수팔경의 하나인 매산송대(梅山松臺)인데 산모양이 닭벼슬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일명 ‘닭벼슬날(鷄官陵)’이라고도 한다. 한편 이 마을의 동남방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날이 있는데 지네(蟻)같이 생겼다고 해서 ‘지네날’이라 부른다. 삶다리 마을은 닭과 지네가 서로 응시하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삶뽕’이라 부르는 안산에서 팔뚝처럼 뻗은 산줄기는 동네 바로 앞에 동산을 이루면서 닭과 지네의 싸움을 말리는 형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은 부귀(富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팔뚝처럼 뻗은 동산이 살쥔이의 다리에 해당된다고 해서 동네 이름을 ‘삶다리(狸脚)’로 부른다고 한다. 행정상의 洞名은 ‘신기(新基)’라고 하는데 왜정 시에 붙여진 이름이다.



2) 양악(陽岳)마을

양악마을은 언제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옛날 양촌고을(陽村縣)의 고을터였다는 전설이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인지 이 마을에는 동헌(東軒)터, 옥(獄)터, 향교(鄕校)터였다는 자리가 있다. 아무튼 삼국시대에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지역이어서 격전지였던 흔적이 있다. 백제 시대에는 마을 위쪽에 큰절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5



층(層)석탑(石塔)이 지방문화재로 남아있다. 속설에 의하면 ‘양학(養鶴)’이라고 해서 道士가 학(鶴)을 기르며 살았다는 곳이기도 하다. 앞산을 ‘학산(鶴山)’이라 부르고 이웃마을로 가는 고개를 ‘학고개’로 부르는 말들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이 마을은 한글학자 정인승(鄭寅承)박사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 마을에는 양악뜸, 용소막뜸, 구석뜸, 독가촌뜸 등 여러 뜸이 모여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3) 파파실(芭谷)마을



院村里 파곡(芭谷)마을은 180여년전 인동장씨(仁同張氏)가 터를 잡고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처음으로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이곳의 지형이 흡사 학(鶴)이

보금자리에서 먹이를 파고 있는 형국과 같다하여 ‘파파실’로 불렸다는 말도 있고 일설에는 마을 앞에 파초(芭草)의 열매와 같은 봉우리가 있어서, 파곡(芭谷)이란 행정상의 동명(洞名)을 붙였다는 말도 있다.

4) 매골(梅溪)마을



매골(梅溪)마을은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의(梅花落地)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1914년 지방관할개정시 매계(梅溪)로 바뀌었다. 이 마을은 300여

년전에 밀양변씨(密陽卍氏)와 인동장씨(仁同張氏)가 정착하면서 취락을 형성했다고 하며 근세 조선말기에 함창김씨(咸昌金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집성촌(集姓村)을 형성하고 있다.

5) 왕경다리(院村)마을



왕이 이곳을 지나
다리를 건너갔다고
해서 왕경다리라는
洞名이 붙여졌다고
하나 통일신라시대
완경원(畵景院)이 설

치되어 공공운수를 담당했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한 것은 구한말(舊韓末)에 역촌(驛村)이었다는 사실이다. 역촌이란 대로상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공식 비공식 족인숙소(族人宿所)가 있는 곳이다. 원촌은 대략 백리(百哩)상거(相距)한 위치에 설치한다. 우리 郡內에는 변암면에 원촌이 있고 이곳에 원촌이 있는데 거리가 百哩 정도 된다. 원촌이란 이름은 원님(院任)이 묵어가는 역촌(驛村)이란 말이라고 한다.

6) 당밑(堂底)마을



계북면 당저(堂底)마을은 언양진씨가 전남 곡성에서 처음으로 이주,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형성됐다고 한다. 약 200여년전이라고 한다. 그 뒤를 이어 남평문씨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동네가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동네의 위쪽에 당산이 있는데 이 당산에는 노송과 바위 그리고 느티나무가 잘 어울려 경치가 좋다.

그리고 이 당산에 큰 절이 있었는데 6·25 한국전쟁때 불타 버리고 지금은 흔적이 없다. 그래서 당산의 밑이라는 뜻으로 '당밑이' 속말로 '댕밑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자로 당저(堂底)라고 쓴다.

7) 외림(外林)마을



계북면 외림마을은 지금부터 약 250여년전에 함안조씨(咸安趙氏)인 조백(趙柏)과 조추의 형제가 무주로부터 이주하여 살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그 뒤 약 50여년이 지난 후 광산김씨가 들어오고 또 그 후 50년이 지나서 창원황씨(昌原黃氏)가 무주에서 이사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솔고개(松峙)’는 ‘솔개고개(鷲峙)’라고 부르는 말이 맞다. 연유를 말하면 ‘솔개’라는 새가 숲속을 찾아드는 지형으로 안의 숲이 지금의 이라 하고 밖의 숲이 ‘내림(內林)’이란대서 마을이름이 유래된다. 이 마을은 총 가구 수 72호에 총 인구수는 423명으로 20년전에 103호까지 번창했었으나 이농현상으로 도시로 이사 가는 바람에 많이 줄어들었다.

8) 어전(於田)(느랏)마을



계북면 어전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여년전에 조선조 현종(顯宗)때 금계한씨(錦溪韓氏), 천석(天錫)이란 분이 문성(文城)마을에서 살 때에 마지견(馬池見)이라는 도승(道僧)을 추운 겨울에 잘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었더니 그 보답으로 이듬해 봄에 묘(墓)자리(계북중학교 옆에 있는 사치과벽혈(死雉掛壁穴)와 집터(韓圭容)를 잡아주었는데 이 집터는 그 당시 느릅나무 숲으로 울창했다고한다. 그래서 ‘유전(느릅나무밭)’이라고 마을이름을 붙였는데 1914년 지방관제 개정때 ‘느릅밭’을 ‘늘밭(於田)’으로 부르게 되어 漢字로는 ‘어전(於田)’이 됐다. 그 후 ‘느랏’으로 부르는 사람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

한씨가 맨 처음 정착한 후 고령신씨와 남원양씨가 들어와 살게 됐다고 한다. 현재 금계한씨는 약 40여호로 우리나라 전통적 씨족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마을에는 밭에 버드나무가 많다하여 ‘유전’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9) 문성(文城, 文星)마을

계북면 문성(文城)마을은 약 4백여년전에 금계한씨(錦溪韓氏)가 계남으로부터 이주, 음지담에서 정착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한다. 그 뒤 금녕김씨가 들어와 살면서 차츰 마을이 커지기 시작하자 양지담까지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85가구 450여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10) 연동(蓮洞)(땃편)마을

계북면 연동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에 이씨가 처음으로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부터이다. 현재 60여호의 총 가구에 총 인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이 마을에는 계북면 내에서는 가장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살고 있으며 단결심이 강하여 새마을사업 등 마을의 공동사업이 잘 추진됐다고 한다.



11) 백암(白岩)(흰바위)마을

계북면 백암마을은 이곳에 흰 돌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하여 196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붙여진 이름이다. 지리적으로 조그마한 시내를 사이에 두고 郡界를 이루어 장수 흰바위 진안 흰 바위로 부르는데 행정구역상에 불과하고 모든 생활권은 사실상 장수 흰바위의 한동네에 속한다.

총 가구수는 60 호 정도이며 백암초등학교가 있고 대유광업소에서 규석 (흰돌)을 많이 캐내고 있다. 박춘실(朴春實) 의병장의 성장지이며 항일 격전지이기도 하고 또 그의 묘가 두류봉에 있다. 지금은 대전 국립묘지에 모셔져 있다.

지금은 규석채광도 중지하고 있다.



12) 월현(月峴)(달고개)마을 (장고개와 달앗마을= 노루고개와 달밭마을)



계북면 月峴마을 둘레에는 절벽과 높은 산 그리고 맑은 시냇물로만 절경을 이루고 있어서 밤에 산 위나 산허리에서 달이 뜨고 넘어가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한다. 이 동네 냇물을 따라 조금 내려가면 밝은 달밤에 신선들이 하늘에

서 내려와서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바위도 있어 하늘의 달님이 놀고 기리는 달밭(月田) 즉 ‘달앗’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月峴(고개에 떠오른 달)이라고 쓰게 되었다고 한다. 약 200여년전에 이씨와 송씨가 정착,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金, 李, 宋, 朴, 陸, 劉, 徐, 韓, 朱씨가 살고 있다.

13) 내림(內林)마을



계북면 내림마을은 약 200년전에 진양강(姜)씨가 처음으로 살게 되면서 형성된 후 지금은 총 40여가구에 200여명이 살고 있다. 姜, 金, 李씨가 각각 6~7호씩이고, 기타 성씨는 몇 집씩 살고 있다. 外林과 같이 솔개고개의 ‘솔개(鳶)’라는

새가 안 숲으로 날아드는 형체의 뜻으로 ‘내림’이라고 했다고 한다.

14) 농소(農所)(농소막)마을



계북면 농소마을은 조선 태조(太祖) 3년에 박, 송, 김 3성이 이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현재는 60여가구에 300여명이 살고 있다. 비교적 농토가 많고 농사짓기에 편리한 동네라는 뜻으로 ‘農所’라고 했다는데 그

렷듯한 지세(地勢)로 보인다. 동네 사람들은 타동네에 비하여 부지런하며 농

사를 잘 짓는다고 한다. 또 문태서, 박춘실 의병장 등의 항일 격전지이기도 하다.

15) 압곡(鴨谷)마을



계북면 압곡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함천이씨가 처음으로 이 동네에 와서 살게 되면서부터라 한다. 이 동네에는 '지네날'이라는

작은 산맥이 있으며 오리형의 혈(穴)이 있어서 오리 압자(鴨)를 쓰게 되어 '鴨谷'으로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한다. 총 가구 수 20여호에 인구는 70여명이 살고 있다. 1996년말 10호 이내로 줄었다.